
**산업자원의 관광자원화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

2019. 3.

문화체육관광부

황 인 호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헝가리 경제 및 문화정책 개관	6
1. 헝가리 개요	6
2. 헝가리 경제의 개관	6
3. 헝가리 거시 경제의 동향	11
4. 헝가리 문화정책 동향	14
제3장 EU 관광 정책	19
1. 개요	19
2. EU 관광관련 정책 제도	23
3. 「EU 기금」	29
4. EU 관광분야 주요 사례	39
제4장 헝가리 관광 정책	56
1. 개요	56

2. 「국가 관광전략 2030」	60
3. 「세체니 계획」 (Szechenyi Plan)	66
4. 「세체니 복지카드」 제도 (Szechenyi Kartya)	71
5. 의료관광	75
6. 치과관광	78
7. 헝가리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추진사업	92
8. 루인펍(Ruin Pub)	95
9. 스마트 호텔 도입	98
제5장 요약 및 결론	101
<참고문헌>	104
<요약서>	109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헝가리
2. 훈련기관명 : 경제연구소(GKI, Economic Research Company)
3. 훈련분야 : 관광
4. 훈련기간 : 2017. 3. ~ 2019. 2.

훈련기관 개요

1. 기관 개요

- 훈련국 : 헝가리
- 훈련기관명 : GKI (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Company)
- 홈페이지 : www.gki.hu
- 소재지 : 1092 Budapest Ráday út. 42-44.
- 전화 : (+36-1) 318-1284

2. GKI(경제연구소) 소개

- 설립목적
 - 본 경제연구소(GKI, Economic Research Company)는 1928년에 설립된 헝가리 경제연구기관(Hungari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이 모태이며, 초기에는 헝가리 정부 소속의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최근 헝가리 정부의 「신 경제개발 계획(New Szechenyi)」의 7대 전략 산업 중 보건의료산업(Healing Hungary), 녹색경제(Green Economy) 등의 육성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분야를 중점 연구 추진하고 있다.
- 조직
 - GKI 경제연구소 산하 전문연구기관으로
 - GKI Healthcare Research Institute Ltd.(보건산업 연구원), GKI Energy Research and Consulting Ltd(에너지 컨설팅 연구), GKI Consulting Ltd(컨설팅)를 두고 있다.

- 민간경제연구소이지만 EU의회, EU집행위원회, 헝가리 의회 예산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주요 파트너이며 25개의 민간기업, 107개소에 이르는 미디어채널을 파트너로 두고 있는 등 헝가리를 넘어 EU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는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 또한, 신 경제개발(New Szechenyi) 정책개발(일자리 발굴 등) 및 정책효과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민간연구소로서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하며 중부유럽에서도 최고의 신뢰 및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민간 경제연구소이다.

○ 주요 기능 및 연구분야

- 최근 보건의료산업(관광, 의료 투자 포함)*, 녹색 경제, 주거, 비즈니스 환경 개발, 과학-혁신-성장, 고용, 교통 분야 등 7대 분야에 대한 정책분석, 평가, 전망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등을 통한 정책자문 및 연구보고서 생산 등을 하고 있다.

* 헝가리 관광산업은 2012년 기준(직.간접) GDP 9.4%, 헝가리 노동력 12.1% 점유하는 등 국가 경제정책의 중요 투자 분야

- 또한 각종 경제지표 등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기반으로 경제분야 정책개발·분석·예측, 각종 산업 경제지표 조사 발표 등 다양한 보고서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등 경제지표의 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1) (각종 경제지표 분석) 헝가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및 미시 경제의 주요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농업, 건

설업 등 부문별 경기전망을 진단하고 더 나아가 실업률과 실질소득 등 국민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여 정부에서 바람직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2) (재정 및 시장 여건에 대한 분석) 민간업체 등에서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시스템, 시장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 3) (EU 경제의 트렌드 및 투자 여건 분석) EU의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및 예측 등을 통해 각 국가 및 민간업체의 경제정책 및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교섭 창구

- Czelleng Adam : Research Manager
- Tel : (+36-1) 318-1284 ○ Fax : (+36-1) 318-4023
- E-mail : czelleng.adam@gki.hu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는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다. 이런 가운데 관광은 국민 여가 활동 중 가장 선호가 높아¹⁾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²⁾에 이르는 등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써 중요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분야중 하나가 관광산업의 성장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관광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2030년, 18억명 예상)되고 있으며 전 세계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등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실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편 유럽은 EU 가입국의 지속적인 추가(현재 28개 국가)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고 관광목적지인 만큼 관광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중요 산업분야이다. 다만, 최근 10~15년 사이에 테러위협, 난민 문제 등 세계 정세의 영향으로 관광목적지로서의 유럽이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관광목적지로서 강세를 보여왔던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헝가리를 포함한 중동유럽이 관광콘텐츠 및 최종 관광목적지로서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로 2006년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던 세계관

1)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15년 사회조사) : 1위 관광활동(38.3%), 2위 문화예술관람(12.2%), 스포츠활동(12.2%)

2) 취업유발계수('14년, 한은/산업연구원) : (서비스업) 17.3, (제조업) 8.8, (관광산업) 18.9

광산업 규모는 2016년 2조 3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UNWTO(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는 2030년에는 국제관광객이 1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많은 국가에서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거주민들에게 취직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만큼 국가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중요한 산업으로 여겨지면서 각 국가에서도 지속 가능한 관광 개념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인지하고 UN에서는 2017년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해’ (The 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를 지정하여 생물 다양성 보존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UNWTO에서 1993년 도입한 ‘지속가능한 관광’ 개념은 관광객으로서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는 의미로서 관광의 개발이나 이용 정도를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에서 관광 자원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은 교통에서부터 숙박, 오락거리, 쇼핑,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어 관광산업의 성장은 사회적 혼란, 문화 유산의 손실, 경제적 의존, 생태학적 퇴화와 같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세계 유명관광지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각종 편의시설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관광지 소음과 쓰레기, 관광지 인근 지대 상승으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이 현지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책임감 있는 여행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 ▲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구 160만명 도시에 연간 3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 공유숙박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임대료 상승에 따른 시내 중심가 인구 지속 감소, 관광객의 고성방가, 노상방뇨,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의 주거권 위협 등
- ▲ (이탈리아 베니스) 인구 5만 4천여 명 도시에 2016년 기준 연간 2,400만 명이 방문하여 900만명 체류, 주민을 위한 주거가 관광객 숙박시설로 바뀌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 부동산가격폭등, 주민 생활편의시설이 줄고, 관광명품매장, 카페 등 관광시설 증가함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서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심에 헝가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부다페스트 등 헝가리의 주요 도시들이 유럽에 위치한 다른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물가가 저렴³⁾하고 주변국과 연계하여 여행할 수 있는 도로망, 철도망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헝가리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주변국에 대한 수요 또는 연계 관광으로 관광수요가 급증하면서 헝가리에 대한 관광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헝가리 관광산업도 헝가리 GDP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가장 크게 일조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2015년 기준 관광산업이 직접적으로는 헝가리 GDP의 5.8%,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헝가리 GDP의 9.4%까지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헝가리 정부도 「EU 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 산업분야로 인식하고 2017년 「헝가리 국가 관광전략 2030」을 발표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의 경우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헝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광정책 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대부분의 헝가리 정책이 재정 등에 있어 EU라는 큰 틀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 만큼 유럽연합 국가들의 최근 관광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분석·소개하고 주변국들의 추진 사례 등을 연구하고 나아가 헝가리 주요 관광분야에 대한 사례를 통해 관광분야 신성장 동력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3) 영국 Telegraph는 부다페스트를 휴가기간 방문할 수 있는 저렴한 유럽도시 3위로 선정함(2016, 2박 3일-3성급호텔)
-바르샤바(1위, 144유로), Vilnius(2위, 146유로), 부다페스트(3위, 156유로), 리가(4위, 168유로), 크루쿠프(5위, 170유로), 리스본(6위, 172유로), 두브로브니크(7위, 175유로), 프라하(8위, 180유로), 모스크바(9위, 185유로), 아테네(10위, 190유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EU) 및 헝가리 내 관광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련 제도와 규정, 연구 논문, 정부 및 민간 간행물과 언론기사 등을 기초로 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 및 민간 경제단체 등에서 논의되어 왔던 유럽연합(EU) 및 중동부 유럽에서의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적인 관광지원 정책 등을 분석·소개하고, 특히 현재 헝가리에서 계획·추진 중인 주요 관광 관련 정책들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정책들의 혁신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관광정책 등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연구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헝가리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거시경제 동향, 기본적인 문화정책 방향 등을 고찰하였다. 이는 지금은 감히 융합관광시대라고 할만큼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관광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므로 전반적인 헝가리 경제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관광분야에 가장 중요한 콘텐츠 자원은 역사·문화콘텐츠라 할 수 있으므로 헝가리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는 헝가리 관광산업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EU 기본현황, 「EU 기금」 제도, 각 회원국별 관광분야 공유경제 대응사례 등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헝가리 관광전략 2030」, 「세체니 계획」, 「세체니 카드」, 치과관광 등 헝가리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융합 관광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분석·소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을 요약 및 결론으로 마무리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을 수집 및 분석하면서 유럽연합(EU)과 헝가리에서 추진 중인 관광정책들을 조사, 연구하는 등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인 검토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실증적인 분석도 함께 병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유럽연합(EU) 및 헝가리에서의 관광정책과 관련된 연구 서적, 관련 논문, 정부 및 민간 간행물 등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중심과제인 헝가리의 관광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헝가리 정부에서 도입·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제도의 도입 취지 및 내용을 소개하였다.

셋째, 위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헝가리 경제연구소(GKI)와 헝가리 관광청 등 관련기관을 활용한 문헌자료 분석도 병행 실시하였다.

제2장 헝가리 경제 및 문화정책 개관

1. 헝가리 개요

헝가리(헝가리어로 Magyar)는 중동부 유럽의 다뉴브(Danube) 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7개⁴⁾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로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가미한 내각 책임제이며, 면적은 남한의 0.94 배인 93,030km²이고 인구는 985만여 명⁵⁾이다.

대체로 대륙성 기후이나 일부 남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을 보이며 연평균 기온은 10.8℃이다. 인종적으로는 마자르족⁶⁾이 92.3%를 차지하며 그 외 집시(50만 명), 독일(20만 명), 슬로바키아(12만 명), 세르비아(5만 명) 등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민은 1,400여 명 정도이다.

헝가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트리아논 조약」(Treaty of Trianon⁷⁾)에 따라 국토의 71%(인구의 60%)를 상실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지속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입지적 우위와 물류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동유럽의 생산 및 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11명이나 배출할 만큼 기초과학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다.

2. 헝가리 경제의 개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헝가리 경제는 농업과 소규모 제조업 형태의

4)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5) 2015년 1월 기준

6) 9세기 경 중앙아시아로부터 서방으로 진출하여 헝가리를 건국하였고 마자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백인종과의 혼혈하여 문화·종교 등의 분야에서 서유럽화되어 있음

7) 1920년 6월 4일 맺어진, 헝가리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고 영토는 9만 3천여 km²로 줄어들었으며 인구도 7백만여 명으로 감소함

경제 수준이었으며 1950년대 초반 공산주의 정부는 정통 스탈린식의 자급 자족 형태의 산업화를 위하여 노력함에 따라 이 당시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정부 소유의 국영기업이나 협동농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헝가리 경제는 1989년까지 중앙 통제 및 국영화 등이 특징인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체제 하에서 정부가 모든 대기업과 서비스 부문을 소유·통제했고 경작지의 경우 2/3 이상이 집단농장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헝가리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특별상여금의 지급, 회사의 관리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 비생산적인 경영절차의 폐지 등과 같은 자본주의적 제도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 1968년 1월 소위 “**신경제 메카니즘**”이 채택되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중앙의 계획경제 기능이 거시적인 지표 제시 등에 한정되었고 투자·고용·가격결정 등에 있어서 기업의 자유재량을 확대됨

그러다가 1980년 말에 중앙계획 경제체제를 사적 소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⁸⁾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혁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시장에 의한 가격조절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발판으로 기본적인 소비제품에 대한 가격통제 및 정부지원 등을 폐지한 것도 이와 같은 개혁제도의 일환이며 다수의 부실한 국영기업들도 문을 닫게 되었다.

1989년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후 자본주의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IMF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계획에 따른 긴축정책의 부작용, 인플레이션과 수출시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연간 4~5% 정도의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였다.

현재 헝가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서유럽의 국가보다 현저히 낮지만 중·동유럽의 국가 가운데서는 상당히 앞선 편에 속한다.

▲ IMF의 자료(2018년)에 따르면 **헝가리의** 1인당 GDP는 16,723 달러 (세계 53위)임
- 체코(23,750 달러 40위), 폴란드(16,180 달러 55위), 크로아티아(14,788 달러 59위), 루마니아(12,575 달러 63위) ※ **우리나라** : 32,775 달러 (29위)

8) 1989년 10월에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스스로 일당 통치 체제를 포기하고 당의 이름도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당으로 변경하는 등 공산통치를 종식하고 다당제와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채택함

< 헝가리 경제 개관(2014년 기준) >

(단위: 백만 명, %)

지표	헝가리	OECD 평균
인구 (백만 명)	9.8	-
최근 5년 평균 경제성장률 (%)	1.3	1.9
고용률(만 15세 ~ 64세)	61.8	65.7
국가부채 (GDP 대비 %)	99.0	115.2
지니계수	0.288	0.308

출처: OECD 헝가리 경제보고서(2016)

농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8을 담당(노동인구의 1/7이 종사)하며, 곡물재배지가 경작지의 약 3/5를 차지하는 가운데 옥수수·밀·보리 등이 많이 재배되며, 사탕무·감자·포도·토마토·후추·양파·수박 등도 주요 작물이다.

헝가리는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대부분 자급하고 있는데 국토의 1/8이 목초지로 돼지·소(40%가 젖소)·양 등이 사육되고 있으며 양봉업도 발달하여 유럽의 주요 벌꿀 생산국이다. 또한 “또꺼이 아쭈”(Tokaji Aszu)라는 디저트 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주요 광물 자원은 석탄이고 보크사이트 생산량은 세계적인 규모이며, 공업은 매우 다양화되어 있고 GDP의 1/4 이상을 담당하는 한편 노동인구의 1/3을 고용하고 있다. 주요한 생산품은 시멘트, 알루미늄, 석유, 천연가스, 비료, 직물, 의류, 전자제품, 텔레비전, 라디오, 전기기계류, 버스, 기관차, 열차 등이다.

헝가리의 전력은 전통적으로 화력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유일한 원전 펙쉬(Paks) 원전이 전체 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원자력 국영기업인 “로스아톰”(RosAtom)에서 최근 원자로 증설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전체 전력의 80%까지 원자력에서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EU 회원국인 헝가리는 EU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담률을 전체 에너지의 13%⁹⁾까지 달성해야 함에 따라 최근에는 대

규모 태양열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에서는 EU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태양열 발전소를 세우기도 하였는데 2015년 6월 Newergies Kft.는 야스아고(Jaszago)시에 0.5MW의 태양열 발전소의 가동을 시작하여 매년 약 550~580KWh 에너지를 생산하여 약 200개의 가정집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관광산업은 헝가리에서 주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2015년 기준 헝가리 GDP의 5.8%와 헝가리 노동력의 9.2%(약 34만여 명이 관광산업에 종사)를 각각 점유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다.

▲ 2015년의 경우 헝가리 관광객은 약 2천만 명으로 추정되어 49억 유로의 외화 수입을 거두었는데 헝가리의 해외관광 지출액(약 16억 유로) 대비 약 33억 유로의 관광수지 흑자 기록함(헝가리 중앙통계청)

철도는 국영철도회사(Hungarian State Railways)에서 소유·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선로 중 거의 1/4 이상이 전화(電化)되어 있으며, 도로의 경우 대부분 포장되어 있으며 내륙 수로가 총 1,600km에 달한다.

부다페스트 근처 페리헤지(Ferihegy)에 국제공항¹⁰⁾이 있지만 우리나라로의 직항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다.

헝가리와 우리나라의 교역관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16.1억달러(수출 9.5, 수입 6.7)로 헝가리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중동부 유럽의 3대 주력 수출시장이다. 헝가리의 주요 수입국은 EU 국가로부터 80%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EU외 국가 중에서는 최근 중국이 대 헝가리 수출 2위국으로 부상하였고 미국, 한국, 일본이 각각 1.8%, 1.5%, 1.4%로 주요 교역국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9) 유럽연합(EU)에서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 지침(Directive for Renewable energy)」을 제정하여 2020년까지 회원 국가별 목표를 법적구속력이 있는 강행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헝가리의 경우 2010년 10월 REAP(Hungary's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Action Plan 2010~2020)라는 신재생에너지 액션플랜을 도입하여 EU기준(신재생에너지 분담률 13%)을 초과한 14.6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10) 부다페스트에서 남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으며, 본래 명칭은 "부다페스트 페리헤지 국제공항"(Budapest Ferihegy International Airport)이었으나 헝가리의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Ferenc Liszt)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2011년에 "부다페스트 페렌츠 리스트 국제공항"(Budapest Ferenc Liszt International Airport)으로 변경함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대 헝가리 진출이 활발하며 생산법인 형태로 진출한 기업 중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순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각 협력기업 진출도 다수 이루어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1998년 초 영국에서 헝가리로 중대형 TV 생산시설 이전 후, 2차·3차 공장 확대를 단행하였고 최근 헝가리 공장을 제조혁신 및 생산성 R&D 거점으로 지정한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헝가리 진출 한국 대기업의 부품 소싱으로 대 헝가리 교역은 매년 높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협력기업의 헝가리 투자진출, 글로벌 소싱 체계 개편으로 무역수지 일부 감소세를 보였으며 주요 수출품으로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식물성 물질, 계측제어 분석기 등이다.

< 한국-헝가리 연도별 수출입 개요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1,158	-21.6	2,114	82.6	1,481	-29.9	950	-36.8
수입	475	0.8	467	-1.7	515	10.3	667	12.3
무역수지	683	-32.0	1,647	241.1	966	-41.4	173	-82.1

출처: 무역협회 (2016년 11월 기준)

최근에는 헝가리가 포함되어 있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협력체인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¹¹⁾에서 EU 내에 한정된 높은 교역 비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 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성장률이 높은 아시아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른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을 추진하고 있다.

11)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1991년 헝가리(비세그라드)에서 만나 외교·경제·안보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결성한 협력체를 말하며, 당초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동 가입 등을 목표로 결성되었고 두 기구 가입후에도 상호협력과 유럽연합 내 지역협의체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

이는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를 향한 것인데 협력 분야도 단지 상공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문화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있으며, 유대관계 강화에 머물지 않고 헝가리의 주요 산업인 농업과 인프라 투자 협력 등을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의 역시 담겨 있다.

위와 같은 동방정책의 기초 속에 우리나라와도 교류 협력도 강화되어 양국 간의 경제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등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 및 중소기업의 협력 등을 위한 교류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헝가리는 위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보건·의료 산업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료 산업분야에 있어 양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헝가리 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R&D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헝가리와 우리나라 중소기업청 간의 MOU를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교류, 중소기업간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IT 분야 기술력과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헝가리는 우수한 인력과 입지, 기초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향후 헝가리의 기초과학 기술과 우리나라의 산업화 기술을 연계하는 협력사업의 추진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보건·의료, 중소기업, 관광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양국 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3. 헝가리 거시경제의 동향

헝가리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체제전환기를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점차 회복되다가 1997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였다.

1999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기반으로 공업생산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4~5%대의 높은 성장세¹²⁾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국제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과 내수부진 및 환율 절상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에서의 선전으로 견실한 성장세가 유지되던 헝가리 경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정책으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재정 개혁의 지연 및 실패 등으로 2006년에 GDP 대비 8.6%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헝가리에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한 수렴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 CP)에 따라 2007년 고통스러운 재정긴축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은 1.6%로 급격히 둔화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계속되는 고유가와 자국통화의 환율 절상 등으로 2007년에는 전기, 가스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에 따라 대폭적으로 공공요금에 인상되어 물가 상승률이 8%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헝가리 경제는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가 어느 정도 소멸되고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융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2009년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초부터는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GDP 성장률이 3.6%로 증가하다 2015, 2016년에는 각각 2.9%, 2.1%를 기록하여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5.0%를 기록하였다. 이는 낮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매 판매 증가, EU 투자 자금 유입, 저금리 등으로 자동차, 건설 분야와 같은 주요 산업 부문에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최근 헝가리는 자동차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하고 있음
 - 자동차 : 2014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29%(31만 대→40만 대) 가량 증가함
2015년 2분기 자동차 생산량 증가로 제조업 생산량 7% 증가함
 - 건설업 : 「EU 기금」 및 경기회복 등으로 2012년부터 꾸준히 성장세
2015년 2분기 전년대비 6.5% 생산량 증가함

다만, 986만의 적은 인구나 낮은 생산성, 브렉시트(Brexit) 등 유럽연

12) 특히 헝가리의 EU 가입이 확정된 2000년(5.2%)과 EU 가입이 이루어진 2004년(4.8%)을 전후로 경제가 활성화됨

합의 결속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와 현 헝가리 정부의 EU 난민 및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난민 정착 제도 도입에 따른 투자금 지원과 충돌, 헝가리에 대한 EU 투자자금의 축소로 이어져 헝가리 경제성장을 저해 할 수 있다는 대외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 OECD의 헝가리 경제 전망 >

(단위: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GDP 증가율	2.0	3.6	3.0	2.1	5.0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0.2	0.1	2.2	2.7
실업률	10.2	7.7	6.8	5.1	4.2
경상수지 (GDP대비)	4.0	2.3	4.3	5.5	6.4

출처: OECD 헝가리 경제보고서(2016)

또한 OECD는 헝가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등을 통한 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수요 변화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기술 역량(skills) 제고 정책이 긴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빈번한 규제 변화, 정책 간 조정기능(coordination) 부족, 통신 등 일부 산업 부문에서의 진입 장벽 등으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약화되고 기업 간 경쟁이 저해된다고 지적하였다.

4. 헝가리 문화정책 동향

1) 배경

헝가리 민족의 역사는 A.C 1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오스트리아 제국 통치 등 오랜 외세 지배 경험으로 인하여 민족의 정체성, 문화적 자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19세기 말 성공적인 민족부흥기를 통해 헝가리 국가문화가 확연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현재 헝가리의 문화제도나 전통들도 이 시기에 재형성된 민족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헝가리의 문화정책은 영토손실에 대한 민족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헝가리 문화정책은 헝가리 민족의 문화적·정치적 정체성의 재형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특히 1980년 초부터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문화부문에 대한 자원들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문화부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대중문화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시기에 국제 금융계의 거물인 헝가리 출신 조지 소로스가 출연한 ‘소로스 재단(Soros Foundation)’ 이 문화공백기를 채우며 헝가리 문화개발에 중점역할을 한다.

1989년 자본주의 이행 후 문화정책은 공산주의 체제 이전의 전통문화와 현대 서양 문화를 재도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993년 「국립 문화기금」의 설립 및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¹³⁾’은 헝가리 공공문화의 전환점을 상징하며 「국립 문화기금」 제도는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전까지 헝가리 문화정책의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헝가리 문화정책의 특징 및 주요 내용

공식적으로 별도의 문화정책 계획은 존재하지 않지만 헝가리의 문화정책의 주요 특징은 실용주의적(Pragmatism)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13) 팔 길이 원칙이란 1945년 영국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으로 공공지원 정책 시행의 기준 중 하나로 팔 길이만큼 예술과 정치사이에 거리를 두어 공공에서 지원은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예술 지원방식에 있어 예술평의회(Arts Council) 즉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예술 지원이 이루어진다.

으로 헝가리는 문화를 사회적 수단 및 목적으로 인식하고 소외층의 문화에 대한 접근권 부여 수단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사회정책’ 사업과 겹쳐있다. 즉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하여 이를 통한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헝가리 문화정책의 주요 재정은 유럽구조기금 등 EU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 관광, 도시발전 등의 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총 6건이 있는바 첫째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연안 지구와 부다성 지구(Budapest, including the Banks of the Danube, the Buda Castle Quarter and Andrassy Avenue,1987), 둘째 홀로코 전통마을(1987), 셋째 파논할마의 베네딕트 천년 왕국 수도원과 자연환경(1996), 넷째 호르토바지 국립공원(1999), 다섯째 페치시 소피아나 초기 기독교 묘지(2000), 여섯째 토카이 와인 지역문화(Tokaj Wine Region Historic Cultural Landscape,2002)가 해당되며 유럽 문화유산 라벨(European Heritage Label)은 에스테르곰 왕립궁전, 시게트바르 요새, 데브레첸 개혁학교와 교회, 비셰그라드 왕궁 등 4건이다.

주요 문화정책 사업으로 페스티벌 산업을 살펴보면

① 페스티벌 산업

최근 헝가리 문화산업의 주요 부문으로 급격히 상승해오며 현재 약 350개의 페스티벌이 등록되어 있다. 페스티벌은 헝가리에서 연간 약 7천5백만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낳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1년 약 1백40만 명이 유료 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이 수치는 헝가리의 최대 규모 페스티벌인 ‘섬 페스티벌(Sziget Fesztival)’, ‘부다페스트 봄 축제(Budapest Spring Festival)’ 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두 페스티벌을 포함하면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헝가리의 페스티벌 산업은 헝가리 국가 브랜드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섬 페스티벌(Sziget Fesztival)은 유럽의 대표적인 페스티벌 중 하나로 부각되어 각종 페스티벌들의 지속적

경영 및 확산 전략에 대한 보다 깊은 조사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시게트 페스티벌" (Sziget Fesztival) >

매년 여름 부다페스트 시 북부 다뉴브강에 위치 면적 266에이커 '오부다이 섬' (Obudai-sziget)에서 1주일에 걸쳐 열리는 유럽의 가장 큰 음악 락 페스티벌 중 하나이다.

1993년 Muller Peter Sziami, Karoly Gerendai 등이 시작하여 비교적 작은규모의 학생축제로 출발하여 1994년도 "유로 우드스탁"(Euro woodstock)이라는 제목과 함께 오리지널 "우드락 페스티벌" 퍼포머들이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1997년도 페스티벌 참가자 수가 약 25만명을 돌파, 2009년도 참가자 수 39만명, 2014년도 50만명 이상을 기록하였고 페스티벌 참가자의 50%이상이 서유럽 국가들에서 오며 이 중 네덜란드 참가자 수가 가장 높다(다음으로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순).

2011년도 영국신문 "The Independent" 로부터 '유럽의 베스트 5 축제' 랭킹에 들었으며 2011년도 유럽피언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베스트 메이저 유러피언 페스티벌"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2년 "시게트 페스티벌" 기획자들은 트랜슬베니아지역에서 <Felsziget Fesztival>을 공동개최 하였으며 본 페스티벌은 이 후 루마니아 내 가장 큰 페스티벌로 거듭남. 이어 2007년 "시게트" 기획팀은 일렉트로 뮤직 페스티벌 <바라톤 사운드 (Balaton Sound)>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엔 우크라이나 키예브 트룩하니브 섬에서 <시게트 키예브> (Sziget Kiev)를 개최하며 페스티벌 브랜드를 확산하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출처 시게트 페스티벌 홈페이지)

② 문화예술교육

헝가리는 초·중·고등학교 및 제3차 학교 내 미술작가 및 연주자 트레이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707개의 공립학교들이 음악과 미술 기본교육 커리큘럼을 약 2,553개의 가맹단체와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9부터 헝가리 내 문화기관과 공공 교육기관 간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정부주도하에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본 협력사업은 유럽사회기금 (European Social Fund)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지원단체들은 대부분 문화기관이었으나 편딩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부분을 중심으로 "공공교육기관의

방과 후 활동사업” 으로 전개되고 있다.

헝가리 문화기관과 공공교육기관 간 문화 교육협력사업의 성공사례¹⁴⁾를 보면

첫째 독립극장협회(FUGE)의 약 100회 이상의 연극 교육학 퍼포먼스(엘리트 헝가리 연극 현장포함), 둘째 데브레첸(Debrecen)시 문화센터는 100여 종류의 프로그램의 약 412 차례 세션을 지역학교 5곳에서(유치원부터 전문고등학교) 약 2,470여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셋째 솔노크(Szolnok)카운티의 아카이브가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 자료로 제공되었던 점, 넷째 죄르(Győr)시의 시립미술관은 10여개의 지역 학교들과 함께 2년에 걸쳐 2,659 학생들에게 114차례의 협력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③ 영화산업

헝가리 노동 인건비가 저렴하지만 전문적 수준을 갖춘 인력들과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 세계적 수준을 갖춘 스튜디오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국제적인 작품들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들 및 도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슈퍼급 작품¹⁵⁾들을 주로 헝가리에서 제작, 긍정적인 반응, 좋은 경험으로 인해 국제적 영화제작사들이 헝가리의 스튜디오를 선호하고 있어 영화 산업 분야에서 좋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다만, 헝가리 자체 제작 영화작품들은 감소하는 추세로 일부 극장들의 경우 재정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등 헝가리 국내 영화 산업의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헝가리 문화 부문은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 관련 정부 예산 또한 경제 여건상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경제수준에 비해 가구당 평균 소비 지출의 약 4%

14) AEMS – National Report Hungary 2013

15) 브래드 피트(Brad Pitt) 주연의 World War Z(2013), 로버트 패틴슨(Robert Pattinson) 주연의 Bel Ami(2012)

이상이 문화부문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평균적인 문화향유는 높은 편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되어 있어 지역문화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으며 특히 적은 예산에 비해 ‘문화의 집 (Művelődési Haz)’ 과 ‘무용의 집’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득 수준에 크게 상관없이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 민족문화 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향후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된다.

제3장 EU 관광 정책

1. EU 관광 정책의 개요

유럽 관광산업은 유럽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UNWTO(2018년도 기준)에 따르면 유럽은 2017년 한해 6억7천만 명(전체 시장의 51%)이 방문하는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1등 관광지 중 하나이다. 유럽은 관광산업을 통해 유럽연합(EU) GDP의 5%이상을 차지하고 180만 개 이상의 기업(주로 중소기업)에서 전체 일자리의 5.2%이상(청년층)을 책임지고 있다. 다른 산업에 대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유럽공동체 GDP의 10%이상을 차지하고 12%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¹⁶⁾

관광은 그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 유럽정체성 형성 등을 통해 공동체에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관광산업이 매년 지역에 따라 3%~6%까지 지속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로서 이런 지속가능한 성장은 생태적으로 다양한 서식지, 지역 고유문화를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관광은 유럽연합(EU)의 경제, 일자리 창출, 사회발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회경제 활동인 것이다.

하지만 관광분야는 유럽연합(EU) 공동체, 각 개별 회원국가, 지역이라는 3곳의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와 그 속에서의 관광사업체, 공공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도전은 정치적, 환경적, 사회적 안전성 문제, 음식·숙박 안전성 및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다. 또한 관광의 계절성, 행정 규제, 관광관련 세금정책, 전문인력에 대한 구인난도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정보의 글로벌화, 빠르게 변하고 있는 IT기술환경(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관광서비스에 관한 정보, 숙박예약 시스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어려움도 경쟁력의 관건

16) 유럽집행위원회(2010.6.30) : Europe, the world's No. 1 tourist destination-a new political framework for tourism in Europe(No. 352final). Brussel

이다.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고객맞춤형 요구사항, EU 내 새로운 관광지로부터의 치열한 경쟁도 중요한 도전이다.

유럽연합(EU)은 관광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는데 더뎠었다. 1980년대 중반에서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1990년 유럽관광의 해’ 선언이 첫번째 관광조치였고 관광 실행계획(1993~1995)을 1991년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에 대한 가능성이 제한적이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비판적이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Maastricht Treaty)¹⁷⁾에서도 관광에 대한 언급은 초국가적 방식보다는 향후 각 개별회원국 정부간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하였다.

1997년 이래로 고용과 성장을 만들어내는 관광의 잠재력이 EU 차원에서 인식되어왔다. 다만, 유럽 관광은 EU 차원에서 각 개별국가 정책과 조화로운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에 직면했다. 지역민, 고용주, 피고용인,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현실적 목표가 필요했다. 관광정책은 결국 개별국가에 의해 완성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2009년도에 체결된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¹⁸⁾에 들어서야 비로소 관광의 중요성을 주목하였다. 리스본 조약에서 ‘EU는 관광분야에서 개별회원국가들의 조치를 보충할 수 있고 특별히 관광분야에서 EU의 중요 프로젝트 경쟁력 홍보를 통해’ 라는 근거를 둔다. 2010년 6월 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유럽에서 관광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로서 “유럽, 세계 1위 관광지” 를 탄생시킨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관광 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을 장려하고 유럽의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설계를 만들어냈다.

유럽 관광은 EU차원에서 각 개별국가 정책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민, 고용주, 정책 결정권자 등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했다. 또한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했으며 개별

17)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며 주요 내용으로 유로화의 도입을 이끌었고 EU의 3가지 중심 구조(경제 및 사회정책,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사법과 국내 문제)를 제안했다.

18)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 공동체에 적용키위해 기존 추진된 EU 헌법이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부결됨에 따라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미니 조약으로 2009년 12월 1일 발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한국가의 대통령격인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부 장관격인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 신설을 담고 있다.

국가 정책들 그리고 지역들에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했다. 지금까지는 어떤 유럽 관광정책도 각 개별 회원국가들의 정책적 상호 협력이 있어야 했다.

새로운 유럽 관광정책의 핵심은 관광이 최대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중요성이 리스본 조약(195조)에서 인식되었다.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EU는 각 회원국들의 조치를 보충하고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관광을 포함시켰다. ‘유럽의회(EU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EU Council)는 각 회원국들의 법과 규제를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근거조항도 마련하였는 바 유럽 관광정책의 주된 목적이 유럽 관광산업을 더 경쟁력이 있고 유럽을 더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유럽의회의 동의와 평가없이 어떠한 새로운 관광정책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리스본 조약에 둔 것이다.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¹⁹⁾를 통해 유럽을 더 통합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도입하게 되는 바 1992년까지 단일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정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우 산업 개발, 교통, 농업, 지방개발 등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운영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s)을 세우고 EU 기금을 이용하게 되는 바 관광도 위 운영프로그램에 포함되어 관광상품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EU는 2007년에 15개 회원국에서 27개 회원국²⁰⁾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리스본 조약에서는 EU 기관들의 권한 재조정 및 의사결정구조 조정을 하고 EU 집행위원회는 EU 안에서의 관광개발을 위한 좀 더 새로운 전략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유는 첫째 EU내에는 유럽연합 GDP의 5%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시장의 5.2%를 차지하는 180만 개의 관광사업체가 있고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내 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둘째 유럽이 1980년 63%에서 2010년 51%로 세계 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19) 단일유럽의정서는 유럽연합의 전신 중 하나인 유럽정치협력체가 추진한 것으로 1986년 2월 17일 룩셈부르크에서 조인됐으며 19유럽연합 내에서 1992년까지 단일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 크로아티아가 2013년에 가입하여 EU 회원국 수는 28개국이었으나 2016년 영국이 탈퇴결정을 함에 따라 다시 2019년 3월이후 27개국이 될 예정임

중이 줄고 있다는 위기의식, 셋째 2030년까지 133%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 태평양의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예측을 통해 알 수 있듯 BRICs로 대표되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이었다. 더군나 65세이상 유럽인구가 202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은퇴후 더 많은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대보다 부유하다는 인구학적 변화도 중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발전이 관광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이 세계 1위의 관광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몇가지 유럽기금과 프로그램들은 관광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첫째로 유럽지역 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이 유럽의 자연 및 문화유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광패턴을 지원하고 있고 결속기금(Cohesion Fund)은 환경 및 교통을 재정지원한다. 둘째로 관광분야에서 고용, 서비스의 생산성 및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소규모 관광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보험료에 유럽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로 유럽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은 농산물과 지역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원되고 이는 농촌 경제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관광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어촌지역의 경우 생태관광과 같은 다양한 선택사항을 만들어 내기 위해 유럽어업기금(European Fisheries Fund, EFF)이 지원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에라스무스(Erasmus)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학생들이 해외 여행을 하게 하거나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경쟁력 및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EU 주요 기구 명칭 및 구성 >

기구명	소재지	구성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브뤼셀	각 회원국 정상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	브뤼셀 및 룩셈부르크	각 회원국 각료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브뤼셀	집행위원(회원국 별 1명)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스트라스부르	751명(직접선거, 임기 5년) *회원국 인구 비례로 의원수 결정, 출신국 별이 아닌 정치 노선에 따라 정치그룹 구성
사법재판소 (European Communities court)	룩셈부르크	28명 법관(각국 1명, 임기 6년)

2. EU 관광관련 정책 제도

1) EU 공유경제 관광분야 제도

① EU 공유경제 협력 어젠다

대부분의 경우, 공유경제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관광분야만을 위해 특화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분야에 유의미한 제도 중심으로 살펴본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한 공유경제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유경제 효과를 확대하고자 2016. 6월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유럽 내 협력 어젠다(A Europe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를 채택하여 공유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였다. 여기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어젠다를 통해 EU법 내에서 공유경제의 5가지 핵심 쟁점(시장진입 요건, 책임 규정, 소비자 보호, 고용, 과세)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 유럽집행위원회의 공유경제 어젠다 주요 내용 >

이슈	주요내용
시장진입요건 (market access requirement)	·단순히 공유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전문적 사업자와 일시적 공급자를 구분할 수 있는 분야별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책임소재 (liability regimes)	·공유 플랫폼은 불법적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고 신뢰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 *개별적인 서비스 공급자를 대신하여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지불서비스 등과 같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규정
소비자 보호 (protection of users)	·소비자가 불공정 거래관행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일시적 공급자에게는 과도한 정보의무와 기타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지 말아야 함
고용 (self-employed and workers in the collaborative economy)	·고용과 관련한 부분은 각 국가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플랫폼 고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와 플랫폼간의 계약관계, 근로의 특성, 보수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과세 (taxation)	·서비스 공급자와 플랫폼은 여타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할 의무가 있으며, ·각국은 관련 세법규정을 단순화, 명료화하고 플랫폼 운영자는 납세당국의 징세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출처 : EU 집행위원회(2016)

② 공유경제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체계 강화

대부분의 경우 공유경제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관광분야만을 위해 특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광 분야를 넘어선 폭넓은 정책 체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심적인 고려 요소와 우선순위 정책 목표에 대한 원활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EU차원에서는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성장총국에서 2015년 초에 협력적 경제, 신사업 방식, 중소기업 작업반(Collaborative, New Business Models and SME Task Force)을 설립했다. 필요할 경우 정책 이니셔티브를 권고하는 등 성장총국의 업무관점에 관련 이슈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유경제의 기회를 더욱 활용하고 기존 업체, 일자리, 소비자에게 공유경제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EU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시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작업반의 과제는 성장총국 내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전반에 걸쳐 관심 있는 총국²¹⁾과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다.

2) EU 관광지표 체계

① 개요

유럽은 국가 또는 광역적 관광의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 지침, 의제 및 전략 등이 잘 수립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관광목적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비판속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또한 EU는 관광 경쟁력이 지속 가능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관광 목적지의 질적 수준은 자연·문화·환경 및 지역사회와의 통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의 지속 가능성은 자연 자원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이용, 관광활동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 청정

21) 성장총국은 특히 통신네트워크 콘텐츠 기술총국(CNECT), 교통수송총국(MOVE), 사법 및 소비자 총국(JUST), 관세총국(TAXUD)과 긴밀히 협력

에너지 사용, 유산 보호 및 자연 문화 보존, 양적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차원에 걸쳐 있다고 보고 있다.

EU가 제시하는 유럽관광지표시스템(European Tourism Indicator System, ETIS)의 주목적은 구체적인 관광 목적지를 대상으로 지역 차원에서 관광 목적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함으로서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관광지 인증수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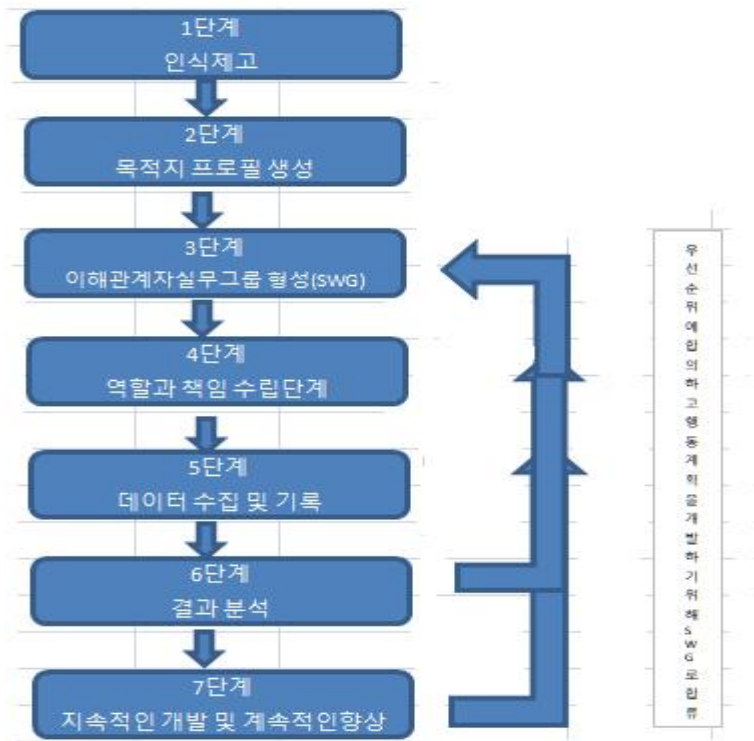
이 시스템은 지역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가능한 많은 사람의 참여를 증대하고 목적지의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음으로 대상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프로파일을 수립한다. 또한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을 모아 이해관계자실무그룹(SWG: Stakeholder Working Group)을 조직한다. 각 이해관계자에게 관련된 지표를 명시함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이들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한 뒤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모두 7단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관광 관련 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선택적 지표를 채택하며 이후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광발전방안에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 주요 지표별 관련주제에 따른 협력기관 사례 >

주요 지표관련 주제	주제별 지역관광 관련 집단
관광객 수	지역관광당국
에너지 효율	지역 에너지 공급업체
재활용 비율	지역 폐기물 담당부서
생물 다양성	지역 환경 담당부서 및 관련 NGO
관광 관련 직업의 질	지역 대학 및 연구소
관광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	지역 주민회 및 공동체
객실 점유율	호텔 연합회 등

< EU 관광지표시스템의 절차(지표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 절차) >



출처 : EU(2013), p. 17

EU의 지속 가능한 관광지표를 관광지 관리,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 영향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핵심지표와 부가지표로 더 세분화하였다.

핵심지표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관광지 관리지표로서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이나 평가준비가 있는 방문지 비율 등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여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입증하는 인증을 이용하는 관광기업 비율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방문지의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방문자 비율을 통한 ‘고객 만족도’, 방문지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인지하고 있는 방문자 비율을 통한 ‘정보와 소통’ 을 주제로 한 지표로 구성된다.

경제적 가치 지표로서 월별 관광객 숙박일 수를 통한 ‘관광객 흐름 (규모 및 가치)’, 관광객의 평균 숙박일 수가 나타내는 ‘관광업체의 성과’, 전체 고용 대비 관광 부문의 직접고용 비율로 나타나는 ‘고용의 양과 질’, 지난해 화재안전 검수를 받은 관광사업체 비율을 통한 ‘안전과 건

강’ ,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광사업체 비율로 나타나는 ‘관광 공급체계’ 에 관한 지표로 구성된다.

사회문화적 영향 지표로서 거주인 100명당 방문자 수로 나타나는 ‘커뮤니티/사회적 영향’ , 관광부문의 남성/여성 고용자수로 나타나는 ‘양성 평등’ ,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참여하는 상업숙박시설 또는 명소 비율을 통한 ‘평등/접근성’ , 문화유산 보호정책에 포함된 방문지 비율을 통한 ‘문화유산 및 지역정체성 자산 보호·강화’ 에 관한 지표로 구성된다.

환경 영향 지표로서 당일 방문자 교통수단별 이용비율을 통한 ‘교통 영향 감축’ , 기후변화 완화계획에 참여하는 관광업체 비율을 통한 ‘기후 변화’ , 방문지에서 나온 쓰레기의 양(연단위 혹은 월단위)을 통한 ‘폐기물 관리’ 등이 있다. 그밖에도 오수 처리, 수질 관리, 에너지 사용, 조명 소음 관리, 수영 수질 (bathing water quality)에 관한 지표가 있다.

② 유럽관광지표시스템 적용 사례

유럽관광지표시스템(ETIS)를 통해 관광지 개발계획 접근방식에 참여한 관광지들이 다양한 자연자원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왔다고 평가되는 시험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이탈리아에서 혁신적 지역관광 프로젝트를 통한 잠재성 포출

로마라는 행정구역 때문에 로마의 위대한 자연문화적 관광유산의 가치 향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위 프로젝트를 통해 로마시, 로마 주변 지방정부들을 농업, 자연관광, 지속가능 관광 등을 매개로 독립된 관광지로서 디자인 및 라벨링(Terrae Anio Lubensanae)을 제안하고 기업, 비영리 단체 등 관련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경제적 동기부여를 시켜나갔다. 그 과정에서 ETIS 지표들을 통해 왜 독립된 관광지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분석하고 사업 이해관계자들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더 많은 프로젝트 참여를 이끌었다.

유명한 로마관광에 그치지 않고 로마 근교에 있는 7개 지자체를 연결,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방문객들에게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등 몇 개 지역을 벨트화하고 벨트화에 따른 접근성 향상, 지역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관광 여건을 향상시켰다.

나. 지역 협력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다뉴브강 불가리아 지역) 발굴

지금까지 다뉴브 강변 국가들 중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세 국가가 관광산업의 혜택을 누렸왔던데 비해 다뉴브강 하구에 위치한 불가리아는 지금까지 그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불가리아에서 해당 지역 4개 지방정부와 함께 다뉴브 강변에 많은 문화,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크루즈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뉴브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ETIS 시스템(세미나, 설문조사, 논문 등)을 통해 사업효과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사업 확신이 없는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 관광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을 설득시켜 나가고 있다.

③ 시사점

지역별 유동적으로 지표를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화를 통해 기존의 존재하는 관광지표를 검증하여 유럽의 관광대상지에 적합하게 지표를 수정 도입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표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매뉴얼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음으로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 실시를 통해 지표를 도입하기전 주요 관광목적지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적용방안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과 관련 데이터 유무를 파악한 점 역시 기존의 관광 지표연구들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세 번째로 국가적 혹은 광범위한 지역 관광발전 지표의 실질적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관광목적지별로 주요 지표 및 선택적 지표를 제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국가적 혹은 지역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도모한 것은 객관적 지역관광 발전지표가 정립되지 않은 한국에 있어서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이후 국가적 관점에서 지역별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에 맞는 지속적인 관리 및 정책도입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EU 기금』

1) 『EU 기금』 개요

『EU 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ESIFs)이란 유럽 경제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EU 회원국의 사회 및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을 장려할 목적으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회원국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위 『EU 기금』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수행비용의 50~75%를 『EU 기금』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원국에서 충당하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 형태이다.

기금의 배정기간은 통상 7년을 단위로 하는데 2007년~2013년에는 총 3,474억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2014년 ~2020년에는 3,668억 유로²²⁾가 회원국에게 지원될 계획인데 이 중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중동부 유럽국가에 절반 정도가 배정²³⁾되어 있다.

▲ 2014년~2020년 『EU 기금』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등을 통해 『유럽 2020 전략』을 달성하고자 함

이에 따라 EU 회원국 정부는 ①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로, 항만, 철도 등 교통 인프라, ② 초고속 통신망 등 통신 인프라, ③ 저탄소 발전소 등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 ④ 의료기기와 병원 시스템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에 위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4년부터 『EU 기금』의 목적이 예전과 달리 아래 표 “기금의 목적 변동”과 같이 두 가지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EU 2020 전략』 및 회원국 간의 결속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정한 액션 플랜이 적용된다.

22) 2014년~2020년의 EU 전체 예산(9,600억 유로)의 34%에 해당함

23) 특히 결속기금(CF)이 동유럽국가에 집중 배정되어 있는데 기금 배정 비율(%)을 살펴 보면 폴란드(22), 루마니아(6.5), 체코(6.2), 헝가리(6.2), 크로아티아(2.4) 등임

< 「EU 기금」의 목적 변동 >

2007년~2013년 기금 목적	2014년~2020년 기금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회원국의 제도와 인프라가 EU 기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지원 . 낙후지역 개발과 고용 확대 . EU 회원국 간 역내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 . EU 회원국 간 역내 협력

출처: EU 집행위원회

2) 「EU 기금」의 관리

「EU 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국(총 28개국)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역 간 빈부격차의 축소 등을 위하여 GDP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270개 지역)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발지역(Less Developed Regions), 전환지역(Transition Regions), 선진지역(More Developed Regions) 등 3개의 지역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 「EU 기금」의 지역별 기금 배정기준 >

지역	기금 배정기준 ²⁴⁾	동유럽 배정액 ²⁵⁾ (단위: 억 유로)
개발지역 (Less Developed Regions)	. 1인당 GDP가 EU 평균 대비 75% 이하인 지역으로 EU 전체 27% 차지 ⇒ 총 1,822억 유로 배정	헝가리(150), 체코(153), 폴란드(510)
전환지역 (Transition Regions)	. 1인당 GDP가 EU 평균 대비 75~90%인 지역으로 EU 전체 12% 차지 ⇒ 총 354억 유로 배정	-
선진지역 (More Developed Regions)	. 1인당 GDP가 EU 평균 대비 90% 이상인 지역으로 EU 전체 61% 차지 ⇒ 총 543억 유로 배정	헝가리(5), 폴란드(22), 슬로베니아(8)

출처: EU 집행위원회

24) 지역별 차등 배정금액은 총 2,450억 유로이며, 전체 3,250억 유로(2011년 물가기준) 중에서 나머지 800억 유로는 분야별로 별도로 배정함

25) 1개의 국가 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 구분이 있음

3) 「EU 기금」의 종류

「EU 기금」은 EU 집행위원회에서만 관리하는 기금, 회원국과 집행위의 공동 협력 하에 관리되는 기금 등 두 가지로 구분되며, EU 기금의 75%가 회원국과 집행위의 협력 하에 관리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만 관리하는 기금은 연구, 환경, 대외기금(External action funds) 등이 있다.

그리고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관리되는 기금에는 ① 「유럽지역 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②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③ 「결속기금」(Cohesion Fund, CF), ④ 「농촌지역 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⑤ 「해양어업기금」(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EMFF) 등이 있다.

▲ 「EU 기금」은 구조기금(Structural Fund), 결속기금(Cohesion Fund), 기타 기금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조기금에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과 「유럽사회기금」(ESF)이 해당됨

위 기금들 중에서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F)을 주요 기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은 2014년 ~ 2020년의 경우 약 1,966억 유로가 배정될 계획이며 연구, 기술발전,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에 지원될 계획이다.

최소 230억 유로는 에너지 효율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지원될 예정으로 선진지역에서는 80% 이상이 에너지 효율성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혁신,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전환지역에서는 기술혁신 분야에 60%를 지원할 예정이고, 개발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이 우선시되어 신재생 에너지, 기술혁신 등에 대한 지원은 50%로 제한된다.

▲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의 경우 '14~'20년에 약 1,966억 유로가 배정되며 4개 분야에 우선 지원될 계획임

- 연구, 기술발전, 혁신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중소기업 경쟁력 (competitiveness of SMEs)
- 저탄소 경제 (low-carbon economy)

그리고 「유럽사회기금(ESF)」은 EU 회원국 내의 실업문제 해결과 빈곤 퇴치 및 소외된 계층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에 지원되는데 2014년 ~ 2020년의 경우 약 864억 유로가 배정될 계획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 EU 평균 대비 90% 이하인 회원국에 한해 적용되는데 회원국 수요에 따라 예산금액이 책정되며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유럽사회기금」의 20%가 사회통합 촉진, 빈곤 및 사회계층 간의 격차 완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 「유럽사회기금(ESF)」의 경우 '14 ~ '20년에 약 864억 유로가 배정될 예정으로 4개 분야에 우선 지원될 계획임

- 실업문제 해결(quality employment and labor mobility)
- 사회통합, 빈곤 및 차별극복(social inclusion, poverty and any discrimination)
- 소외된 계층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education, training and lifelong learning)
- 공공행정 개선(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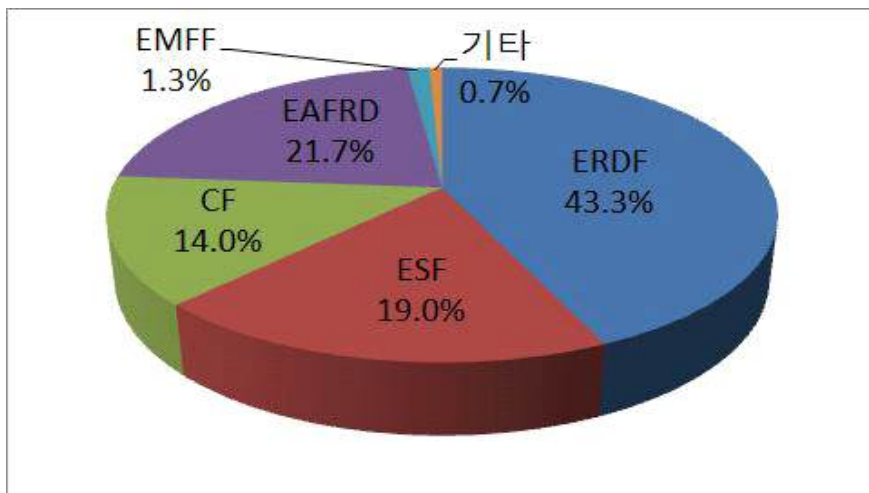
또한 「결속기금」은 주로 기후변화 대응, 환경 보호, 교통인프라 등의 분야에 지원되는데 2014년 ~ 2020년의 경우에는 631억 유로가 지원될 계획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EU 평균대비 90% 이하인 회원국에 한해 지원된다.

▲ 「결속기금(CF)」의 경우 '14 ~ '20년에 약 631억 유로가 배정될 예정으로 5개 분야에 우선 지원될 계획임

- 저탄소 경제 (low-carbon economy)
- 기후변화 (climate change)
- 환경보호 및 효율적 자원 이용 (environment and resource efficiency)
- 운송 및 교통인프라 구축 (sustainable transport and network infrastructures)
- 공공행정 개선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한편 「EU 기금」 별로 그 지원 비중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이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이 43.3%로 가장 크며, 「유럽사회기금」(ESF)이 19.0%, 「결속기금」(CF)이 14.0% 순이다.

< 「EU 기금」별 지원 비중²⁶⁾ >



출처: EU 집행위원회

한편, 최근에 스마트·모바일 시대의 도래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가 제고됨에 따라 2014년~2020년 「EU 기금」부터 "신 유럽 네트워크 기금 (New 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인터넷 인프라 구축, E-공공조달, E-건강 등 정보통신 분야,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유럽사회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26) EAFRD :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MFF :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4) 회원국별 「EU 기금」의 배정 내역(2014년~2020년)

2014년~2020년 기준으로 EU 회원국 전체에 배정될 금액은 총 3,250억 유로(2011년 물가기준)이며 중동부 유럽²⁷⁾에 총 금액의 55.7%에 해당하는 1,809억 유로가 배정된다.

▲ 「EU 기금」(2014년~2020년)은 EU 역내 개발 및 결속 강화를 위하여 동유럽 국가들에 집중 배분할 계획임

- 헝가리(약 200억 유로), 체코(약 200억 유로), 폴란드(약 700억 유로)

헝가리는 「EU 기금」을 경제개발(30.8%), 지역개발(13.6%), 교통(13.3%), 환경 및 에너지(12.9%)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EU 회원국별 기금 배정 현황 >

(단위: 백만 유로, 2011년 물가기준)

구분	결속기금(CF)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지역 협력	총 계	
		전환지역	특별지원 ²⁸⁾	선진지역			
헝가리	6,313	13,452	-	-	416	317	20,498
체코	6,562	13,646	-	-	79	298	20,585
오스트리아	-	-	66	-	823	225	1,114
폴란드	24,274	45,917	-	-	2,017	615	72,823
크로아티아	2,676	5,225	-	-	-	128	8,029
슬로바키아	4,361	8,489	-	-	40	196	13,086
슬로베니아	939	1,134	-	-	763	55	2,891
독일	-	-	8,750	-	7,609	848	17,207
프랑스	-	3,147	3,927	395	5,862	957	14,288
영국	-	2,126	2,335	-	5,144	759	10,364
포르투갈	3,000	15,008	232	103	1,148	108	19,599
이탈리아	-	20,333	1,004	-	7,006	998	29,341
그리스	3,407	6,420	2,105	-	2,307	204	14,443
스페인	-	1,858	12,201	432	10,084	541	25,116
그 외 기타국가	14,830	27,524	1,465	457	5,973	2,199	52,448
지역 협력	-	-	-	-	-	500	500
총계	66,362	164,279	32,085	1,387	49,271	8,948	322,332

출처: EU 집행위원회(청년고용 촉진기금 30억 유로 미포함)

27)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28) 외곽지역 및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5) 「EU 기금」의 운용 및 집행 절차

「EU 기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은 집행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EU 집행위와 회원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 EU 회원국은 경제성장 및 역내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rope 2020」 전략에 기초하여 국가별 발전 및 결속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EU 기금」을 배정받기 위해 제휴계약(Partnership Contract, PC)을 집행위에 제출하고 이를 집행위가 승인함으로써 회원국별 지원이 결정된다. 제휴계약은 집행위와 회원국 간의 협약으로 모든 회원국은 제휴계약 제출 시에 국가·지역별 달성 목표(대상 영역, 각 영역별 지원 우선순위, 기간별 프로젝트 등)를 제시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지원내역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운용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 OP²⁹) 역시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① OP 대상 영역(예: 환경, 도로 등)에 대한 강약점 분석, ② 프로젝트 선정시 우선순위 영역(국가결속전략에 기반), ③ 특정영역(예: 도로 등)에 대한 세부 우선순위, ④ 예산구성 및 사용계획, ⑤ 프로그램 실행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다.

EU 집행위는 각 해당국의 제휴계약서 및 운용 프로그램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운용 프로그램 제출 시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제휴계약 혹은 운용프로그램 관련 개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EU 집행위는 해당국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국에서 집행위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집행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프로젝트 시행기간 중에도 사전에 제출했던 과정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만일 회원국에서 제휴계약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집행위는 이에 대한

29) 운용프로그램(OP)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요 정도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EU 집행위원회에서 2004년~2006년 기금운영 이후 회원국의 자율성과 개별프로젝트의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세부내역 포함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임

평가절차를 걸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운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 해당국은 변경되는 항목에 대한 예상 결과, 「EU 2020」 전략 및 제휴 목적에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운용 프로그램에 포함된 각 국의 프로젝트 시행기관은 「EU 2020」 전략 목표에 따라 EU 기금 기관(집행위 산하기관 및 지방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확정, 진행하게 된다.

< 「EU 기금」의 집행 절차 >



6) 프로그램별 「EU 기금(2014~2020)」의 헝가리 배정 현황

2018년 12월 현재까지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헝가리의 「EU 기금」 배정을 살펴보면 경제개발혁신(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등 총 7개 운영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 OP)에 약 210 억유로의 기금이 배정되었다.

< 운영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및 자원 >

운영 프로그램(OP)	주요 우선순위	자원별 규모* (유로)
경제개발 혁신	중소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R&D, 관광	ERDF(59억), ESF(17억)
지역 개발	도심교통개발, 저탄소 도심환경 인프라구축	ERDF(29억), ESF(4억)
통합교통	국가간 육로, 철로 접근성 향상, 지속가능한 도심.교 외 지역 교통 개발	CF(27억), ERDF(6억)
환경.에너지	기후변화 영향 적응, 수질개선	CF(31억), ERDF(0.8억)
인적자원 개발	교육훈련, 사회통합	ERDF(9억), ESF(17억)
공공행정	공공행정개선, 기술혁신	CF(2억), ERDF(6억)
경쟁력 개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고용창출	ERDF(2억), ESF(2억)
총 7개 OP		211.8억

* ERDF(유럽지역 개발기금), ESF(유럽사회기금), CF(결속기금)

출처: EU 집행위원회 자료 재구성(2018.12월)

7) 「EU 기금」의 기타 특이사항

운용 프로그램(OP)은 대략적인 수행 프로젝트 리스트와 프로젝트별 소요예산 및 세부 수행목표를 포함하며 여기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세부실행 프로젝트가 아닌 점에 유의³⁰⁾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는 기금 수혜국의 책임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100%를 지불하지 않고 예산비용의 6%를 성과예탁금(Performance Reserve)으로 남겨 두는데 이 예탁금은 2019년 프로그램 중간보고 시에 설정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 시행기관은 집행위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받는 동시에 선지원금(Pre-financing)으로 최대 총 프로젝트 비용의 2.5%를 지원받아

30) OP는 EU 집행위에서 EU 회원국의 자율성과 개별 프로젝트의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프로젝트 세부내역 포함을 강제하지 않음

프로젝트를 착수할 수 있다.

한편, EU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EU 기금」과 관련하여 역내 재정난에 처한 회원국들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금의 허술한 관리와 부적절한 자금집행 등으로 인해 기금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금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감은 기금운영의 복잡성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의 어려움, 취약한 감시체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EU 기금」은 유럽 경제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여 EU 회원국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통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Financial Times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로부터 입수한 내부분건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474억 유로의 자금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초기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하였으며, 최초 2년간 80억 유로 상당의 자금이 구조기금 명목 하에 집행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으며 특히 수천만 유로가 마피아(Mafia) 등 범죄단체에 유입되는 등 「EU 기금」의 허술한 관리 등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또한 「EU 기금」의 프로그램은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과 같은 국가의 현대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십억 유로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프로젝트에 남용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공동체에서는 기금의 저조한 자금집행 실적 우려에 대하여 모집된 기금 규모와 기금집행처의 파악, 조사 및 선택 과정에서의 시간 소요 그리고 유럽공동체 자체의 채무 상환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민간 은행과 같이 반드시 주어진 시점에 목표 성과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4. EU 관광분야 주요 사례

1) 공유경제의 관광분야(숙박서비스 중심) 대응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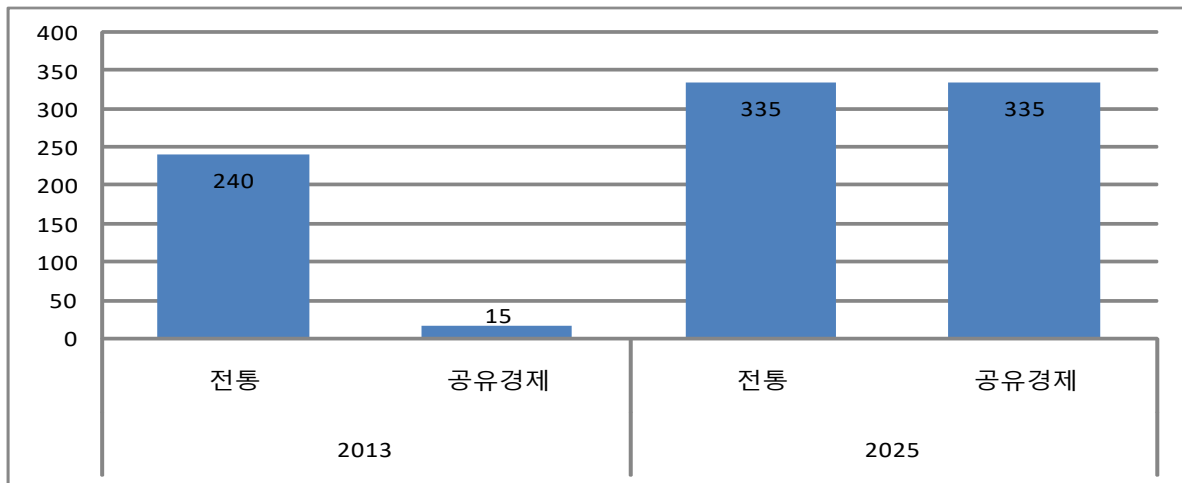
① 공유경제 시장 현황

공유경제시장은 전체적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공유경제시장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PwC(2014)에 따르면 이러한 엄청난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350억 달러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P2P방식(peer to peer) 서비스가 전례 없는 규모로 전문 관광서비스의 대안으로 등장하며, 공유경제가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호텔이나 렌터카처럼 일부 전통적인 여행·관광 서비스의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한 사업 방식들이 업계 전반에 혼란과 변화를 가져오고 심지어 완전히 대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³¹⁾.

< 공유경제 규모 >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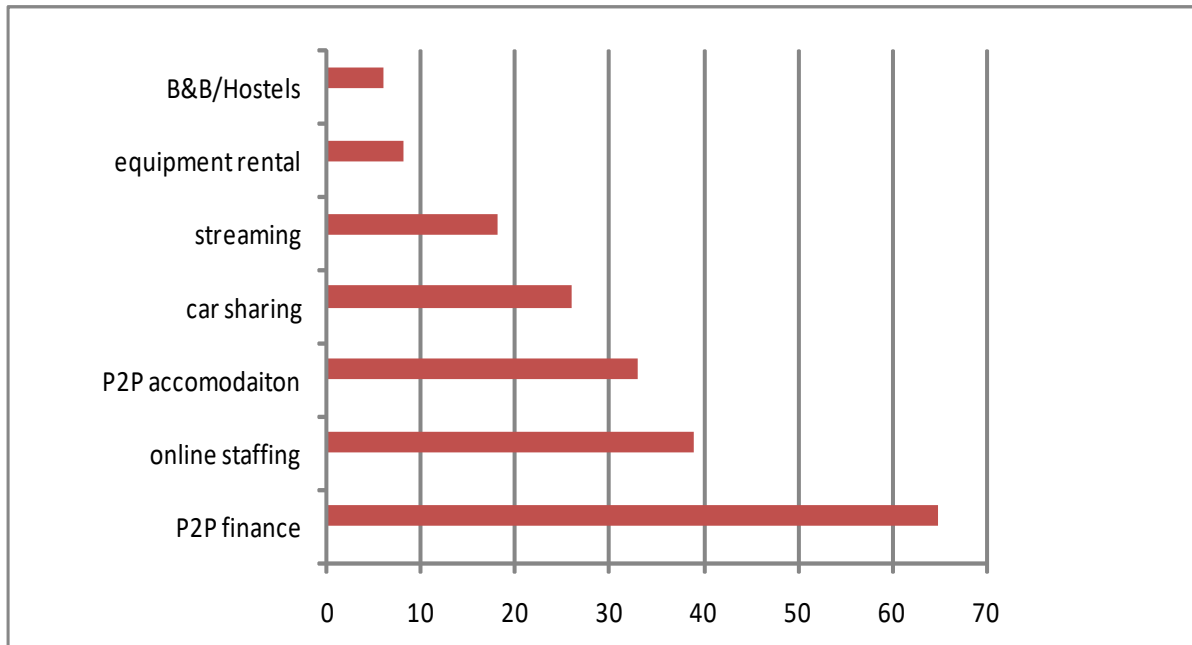


출처: PwC(2014), 재인용: Credit Suisse(2015, p. 20).

31) Forbes(2015년 2월 10일)

< 공유경제의 분야별 성장 전망 >

(단위 : %)



주: 2013~25년 분야별 수입(Revenue)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준으로 작성됨.

출처: : PwC(2014), 재인용: Credit Suisse(2015, p. 20).

관광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협력적 소비라는 사업 방식 확산에 주요한 시장이다.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더 실험적이며 새롭고, 독특한 관광경험을 하길 원하고 있으며, 공유경제는 이를 충족시키기 충분하다. 진정성 있고 매력적인 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 플랫폼이 촉진됨에 따라 기존 관광 시장이 세분화되고 새로운 틈새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공유경제의 영향력과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보급 수준은 국가 및 하위 분야별로 다르다. 그 중에서도 미국, 중국과 함께 이미 수년간 공유경제 플랫폼이 운영되어온 서유럽 시장도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경제가 지니는 큰 성장 잠재력이 관광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② 공유경제의 우려요인

가. 기존 사업과의 마찰

공유경제의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의 하나는 기존 사업과의 마찰이다. 공유경제 거래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거래를 일부분 대체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숙박공유의 경우 대표적 기업인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기존 숙박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아래표로 정리된 것처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시설 공급이 10% 증가할 때 호텔산업의 객실 수입은 0.1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숙박공유 도입이 기존 호텔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

		이화령.김민정 (2016)	Zervas et al(2016)	Neeser(2015)
분석 대상	객실 수입	-0.16	-0.39	-0.06
	숙박료	-0.13	-0.19	-0.12
	객실 이용률	-0.04	-0.05	-0.02
분석지역		한국	미국 텍사스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분석기간		2010~2014	2008.~2014.8	2004.1~2015.5

출처 : 이화령.김민정(2016)의 <표 3-6>, <표3-7>

모든 혁신이 전통적인 산업에 대해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무엇보다 기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신규 공유경제 공급자나 플랫폼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만약 공유경제가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누리서 경쟁을 왜곡한다면 전체 시장의 질적인 하락과 사회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거래상 위험과 사회적 안정성 문제

공유경제는 대개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정형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거래함에 따라 다양한 거래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우선 높은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수요자는 서비스의 질을 가늠하기 어렵고 공급자 또한 수요자를 파악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어려워 거래 상대방이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거래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는 문제 발생 시 보험 처리나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힘들어서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경제의 확산은 세계적, 시대적 추세로 신규거래 창출 및 경쟁 효과, 홍보·시장성 시험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 비용 저감효과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수반한다. 하지만 기존거래 구축, 거래 및 사회적 위험이라는 우려요인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럽도 글로벌 시장에서 공유경제계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의 하나로서 PwC(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유럽 공유경제시장의 거래액은 약 281억 유로로 추산되며 그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은 숙박 분야로 전체 공유경제시장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 공유경제를 주도하는 분야 중 하나인 숙박분야를 중심으로 공유경제가 미치는 영향과 각 국의 대응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각국의 시장여건 및 제도적 기반 등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 국내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각 국별 대응 사례

영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기임대 형태인 공유숙박업이 총 임대기간이 90일 이하이고 임차인이 해당 주거지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관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없이 단기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³²⁾을 개정하였다. 다만, 특정 거주형태 및 특정 지역에 대해 지역의 편의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예외규정도 같이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2014년 제정된 『주택 및 도시계획 혁신을 위한 법령』

32) 런던시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주거용 건물의 일시적인 숙박공간으로의 활용은 주거지 활용의 물리적 변경으로 간주하고 임대의 기간과는 관계없이 이에 대한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에 따라 별도의 허가없이도 개인 거주지의 숙박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 거주지³³⁾’가 아닌 ‘제2 거주지’에 해당될 경우 관련 지방정부에 별도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 거주지’는 연간 임대한도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파리 내에서도 일부 지역³⁴⁾의 경우 단기 숙박임대를 할 경우 시청으로부터 사전허가가 필요한 곳이 있다.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숙박공유 모델규제는 지자체 소관사항이다. 카탈루냐 지방의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 관련 규정 「Decree 159/2012」에 따라 단기 숙박임대가 가능하나, 주택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방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카탈루냐 여행법 개정안」의 제222.1조에 따라 룸 임대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연간 최소 2회이상 임대되어야 하며, 1회당 임대일이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연간 총 임대기간 또한 최대 4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단기 숙박임대를 위해서는 카탈루냐 관광업 등록 기관의 허가(등록³⁵⁾)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또한 호스트가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마드리드 자치정부는 2014년 7월 승인된 규정에 따라 관광객 대상 숙소 대여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숙박일수가 5박³⁶⁾이어야 한다.

독일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각기 다른 대응이 나타났다. 함부르크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요청할 필요 없이 단기 숙소대여를 합법화한 반면, 베를린은 2016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아파트 면적의 50%이상의 경우 지방 정부 당국의 명확한 허가 없이는 단기대여를 금지했다. 이는 숙박공유 활성화로 인하여 도시 내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장기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공급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³⁷⁾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년 최장 2개월(1회에 최대 4명)까지 집을 빌려주는 것을 허용하는 민간대여라는 새로운

33) 직업관련 문제, 건강상의 이유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없는 한 연간 8개월 이상 거주해야 ‘주 거주지’로 분류

34) 예외지역은 파리, 오드센(Hauts-de-Seine)주,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주, 발드마른(Val-de-Marne) 주와 더불어 인구 20만을 초과하는 지자체가 포함된다.

35) 에어비앤비(Airbnb)는 불법 숙소를 등록했다가 3만 유로를 물어야 했으며, 홈페이지에서 이들 숙소를 삭제하지 않아 1,500유로의 벌금을 추가 물음(WTM, 2014). 이러한 방안을 도입한 이래로 카탈루냐에서 비인가 민간 숙소 대여는 거의 50% 줄어들었다(카탈루냐 정부, 2015)

36) 추가로 비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무선인터넷의 제공, 투명한 가격 정책, 영구 거주 금지 의무 규정

37) 2015년 유럽의 첫 공유 도시로 선정됨

숙박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정책을 2014년에 도입했다. 화재 안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주택 소유주 혹은 자가거주자 협회회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이웃들이 소음 혹은 불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절차도 있다³⁸⁾. 이후 암스테르담 시와 에어비앤비(Airbnb)가 체결한 합의서는 에어비앤비(Airbnb)가 집주인 소득에서 관광세를 징수하고 집주인들에게 연 2회 업데이트 사항을 보내 지역에 적용되는 법과 의무 사항을 알리며, 불법 호텔문제 해결을 위해 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방안도 명시하고 있다³⁹⁾.

< 암스테르담 시의 단기 숙박임대 유형 구분 >

구분	임대범위	임대기간	투숙객 한도	관광세	보고/허가 방식	기타 허가요건
Bed&Breakfast	주거지 면적의 40%이하	연1일~	4인	5%	보고(자치구 및 시 환경국)	레지오넬라 군에 대한 조치 알코올음료 판매 라이선스 보유/숙박등록대장 기록 의무
개인휴가 임대	전체 주거지	연1일~ 60일	4인	5%	-	호스트가 주거주자 전문 임대서비스가 아닌 간 헐적 임대 주거지의 화재안전 요건 충족
단기체류	전체 주거지	연7일~ 6개월	4인	5%	허가(10년간 유효)	암스테르담 시내 800개의 허가된 아파트에 한정

출처 : Rating Legis(2016), p, pp. 63-65

그리스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제도를 정비하였는 바, 빌라와 아파트를 포함하여 호텔이 아닌 숙박 시설과 관련한 행정상 번거로움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였다. 2013년 이러한 절차와 기준이 크게 간소화되었고 개인의 단기 민간숙소 대여는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이 사업자 등록이나 특수보험 보장 없이도 개인 소유의 단독 주택을 대여⁴⁰⁾할 수 있게 되었다.

고급 빌라로 분류되는 주택은 2015년 11월 1일부로 기타 개인 소유의 집이나 아파트도 세부 조건을 충족할 필요나 관광 사업자로 등록할 의무

38) City of Amsterdam, 2015; Airbnb Policy News, 2015

39) City of Amsterdam, 2014

40) 단, 최소 주택 크기, 위치, 건물허가 관련법 준수, 화재 안전, 위생, 단기 숙소 임대 기간, 당국에 의한 운영 허가증 교부 조건을 충족해야 함

없이 단기 대여가 가능해졌다. 민간 단기 대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체계적인 단기 대여에서 발생하는 어떤 소득이든 기업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소득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 브뤼셀은 공유경제의 확산에 대응하여 2016년 3월 관광숙박에 대한 조례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이전에는 사전 신고나 별도의 검사절차 없이 숙박임대가 가능하였으나, 개정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 4월부터는 사전신고와 함께 임대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추가요건(안전, 보건, 설비 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은 숙박공유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단기임대·전대(주택법 및 임대차법)·관광숙박 및 호텔업 등의 관련 법령 중 어떠한 것에도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각각의 숙박공유 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승인이 필요하며, 2015년 8월 스웨덴 법원이 에어비앤비(Airbnb)를 무허가 호텔업과 비교한 다소 엄격한 판례도 존재한다.

포르투갈은 공유숙박에 과세를 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공유 서비스를 공식 경제 분야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다. 2014년부터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자들은 관광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보고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현황과 활동을 해당 지자체에 알리는 것이 의무화⁴¹⁾되었다. 해당 절차 도입 후 불과 몇 주만에 공식 자료은행에 등록된 합법적 지역 숙소가 10배 증가한 효과가 나타났다.

헝가리에서는 이미 휴가철 단기 숙소 대여(Zimmer Frei)⁴²⁾가 기타 숙박 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용 숙박서비스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기 대여 숙박시설은 반드시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운영자들은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정부에 이용객 숙박 데이터(고객수, 숙박일수)를 제공해야 한다.⁴³⁾

④ 시사점

41) 어길 경우 최대 3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간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금지

42) 'Zimmer Frei'는 개인의 주택 중 빈방을 여행객에게 임대해주는 것으로 대략 1970년대부터 헝가리 주요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됨

43) <http://eugo.gov.hu/a-z-index/operation-other-accommodation-facilities> 참조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숙박공유 정책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수요자, 공급자, 플랫폼이 정책의 주요 주체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플랫폼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유경제 시장이 커질수록 플랫폼의 위상은 커질 것이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플랫폼을 통해 숙박공유의 문제점(세금 문제, 불법 전문영업 구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고민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주요국 사례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별, 도시별 숙박공유 현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숙박공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주거 환경 보호 등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거나,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시별 특성과 공유숙박 현상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공유경제 공급자는 전통적 공급자와는 달리 비전문적이고 일시적·간헐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기존의 규제방식은 공급자를 전문적 사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유 경제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비전문적인 개인 공급자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 역시 감안해야 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의 특수성과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공유경제에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한도를 정하여 한도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 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전통적인 공급자 규제를, 한도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 일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들의 경우도 대부분 주거용 지역이나 건물, 주요 거주자에 한해서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거래량연동 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래량연동규제에는 집행의 어려움이 따른다. 동 규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개별 공급자들의 거래량에 관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나, 숙박공유에 대한 제도화가 진전된 주요국가들에서도 거래량연동규제의 효과적 집행수단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부 도시에서는 불법인 것으로 의심되는 숙소를 직접 예약 하거나 불시에 단속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 유사 민박업 등 기존 규제와의 관계도 고려해야한

다.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민박업을 정의하는 틀을 기초로 유형별 명확화와 관광숙박업 관련 규정을 총괄하는 법체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는 서울·부산 등 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외국인 손님에 한해서만 공유숙박 허용되었으나 연 180일 이내로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형평성 문제, 투숙객 안전 등을 이유로 한 기존 숙박 업계의 반발, 우려 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나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EU의 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사례

전 세계 관광활동의 50% 정도가 연안지역(Coastal area)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해양관광에 대한 정책적, 산업적, 환경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연안 국가들은 연안지역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관광⁴⁴⁾을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는 내륙 중심의 경제성장이 가지는 한계 극복과 해양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목적으로 해양경제 개념을 도출하고 해양산업을 정의하고 해양관광산업 육성전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EU는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Blue Growth, 2012)을 발표하여 해양레저·관광⁴⁵⁾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천명했다.

한편 전 세계 관광시장 규모를 추계한 값에서 해양레저·관광을 별도로 분리한 정확한 통계⁴⁶⁾는 작성되지 않고 있으나 EU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시장 규모를 별도로 추정하고 있다. EU의 해양레저·관광산업 전체 고용 규모는 320만 명이며, 총 부가가치는 1,830억 유로 규모⁴⁷⁾이다. EU 내 관광활동의 3분의 1이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EU 전역의 숙박시설 중 51%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2017년 EU 크루즈관광 시장 규모 478억 유로에 이르며, 40만 명이 크루즈 산업에 종사함(CLIA, 2018).

이렇듯 EU의 해양레저·관광산업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연안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특히, 16세에서 35세의 젊은이가 관광관련 종사자의 45% 차지)에 매우 중요하다.

2013년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해양레저·관광분야에 기업체 대부분이

44) 해양레저 관광은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을 포함하는 공간 속의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목적의 활동을 말한다

45) EU는 해양레저 관광산업 규모의 파악을 위해 자료 취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양레저 관광산업(Maritime and Coastal tourism)의 범위를 해변관광(Coastal Tourism), 크루즈관광(Cruise Tourism), 요트 및 마리나(Yachting and Marinas)의 3개 부문 구분함(ECORYS,2013)

46) 국가별로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산업 중 해양과 관련된 산업의 규모를 집계하거나 크루즈산업, 마리나산업 등 단위 산업별로 시장규모를 추정

47) ECORYS(2013)

영세중소기업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발표하였는바 이 전략을 통해 유럽연합, 각 회원국·지방정부, 산업계가 실천할 14가지 전략방안을 제시하여 유럽의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① 성과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가. 데이터 축적

EU 차원에서 지역별, 해역별 등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경제적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획과 관광목적지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역별 정확한 산업통계를 통한 비교와 일관성있는 정책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나. 관광수요 가변성

관광분야의 수요는 2011~2020년 사이 예상되는 소비지출이 9%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등 경제적, 정치적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게다가 교통비의 절감으로 인해 유럽 해안과 타 지역과의 경쟁이 심해져 관광수요의 가변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해양관광 분야 사회경제적 소득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는 계절성을 극복할 혁신적 정책이 필요하고 인구학적 변화에도 적응하여야 하는 바 늘어나고 있는 노년층 인구⁴⁸⁾에게 매력적인 상품 개발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고 비유럽 방문객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 관광 접근성 제고 등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및 환경 보호 필요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다. 중소기업 영세성 극복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 활동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투자 및 혁신을 위한 대출 등에 대한 금융권 접근의 한계, EU 내 각 개별국가에 흩어져 있는 사업주체간 협력이 절실한 만큼 EU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역 중소관광업체들의 항구 인프라 투자와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부담이 거세지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관광업체들의 투자와 혁신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EU 역내 해역에 있는

48) EU에는 55세에서 80세 사이 노년층 인구가 1억 2천 8백만명(Eurostat, 2012)

국가들, 지역들, 이해관계자들, 기업체들간에 성공적 노하우 공유 등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 추진 사항>

- (1) 관광산업 데이터(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 이용성 제고 노력
- (2)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에 중점을 둔 EU 관광정책 차원의 정책 캠페인 개발
- (3) EU 역내 해역에 있는 크루즈 사업자, 항구, 해양관광 이해관계자 등 범유럽 차원의 협력 촉진
- (4) 국가간, 지역간 파트너십 개발, 네트워크, 클러스터 개발전략 지원

<각 회원국, 지방정부, 관련업체 권고사항>

- a. 각 이해관계 당사자간 네트워크, 클러스터, 전문화 전략에 적극 동참
- b. 시니어들 혹은 장애인 같은 특별한 시장에 대한 맞춤형 상품개발 참여

② 인적 기술 혁신

해양관광분야가 직업의 계절성, 경력 개발기회 부족 때문에 해양관광 전문가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인력 시장 수요에 맞게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마련하였는 바 EURES(European Employment Service) 포털⁴⁹⁾을 구축하여 구직자와 고용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관광서비스에 요구되는 기술·교육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였고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유럽신용시스템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가장 중점을 두는 교육훈련 정책의 목적은 자격을 갖추고 서비스마인드가 강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청소년 단체, 조직 사이에 국가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커리큘럼과 혁신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49)EU 집행위원회에서 구축한 구직구인 포털사이트구직자들로 하여금 구직, 고용주들로 하여금 구인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함(<https://ec.europa.eu/eures/public/homepage>)

레저 보트 분야에서 각 회원국들은 요트 선장에 대한 자격 요건이 다양하다. 이는 국경을 초월한 발전을 제한하고 선박관련 인력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자격 요건 및 안전장비 관련 의무사항도 회원국간에 매우 다양하며 이는 유럽연합 역내 이동성과 시장접근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소 해양레저·관광산업 기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보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 추진 사항>

- (5) 직업적 요트 선장들과 레크리에이션 보트에 대한 자격 요건에 관한 EU 차원의 법적 조치 마련
- (6) 해양 관광 안전 장비 관련 규정에 대한 EU 차원의 정비
- (7) ICT 같은 혁신 관리 기술 계획 장려

<각 회원국, 지방정부 권고사항>

- a. 인터넷 연결성, 전자상거래 기술 촉진
- b. 지도, 팸플릿 등 정보 번역서비스 장려

<관련업체 권고사항>

- a. 직업기술 및 교육훈련 장려정책 적극 참여
- b. 관광상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투자
- c. 해양 레저·관광산업분야에서 일자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수강 개설 촉진

③ 지속 가능성 강화

가. 환경 압력 극복

관광개발로 인한 각종 자연자원의 훼손, 오염 등으로 인해 청정지역까지 영향을 받게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훼손이 더욱 악화된다. 각종 물관리 및 해양관련 법이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연안지역을 보존토록 하고 있어 'Wales Coast Path'는 웨일즈에 있는 1,400km에 걸친 해안에 2012년

에 28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3,200만 파운드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은 좋은 성공사례이다.

환경의식이 강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 밖에 EU 친환경 인증라벨(Eco-label), 관광인증시스템(Travelife certification system), 유럽환경관리 및 검사 계획(European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등 지속 가능성을 모니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또한 레저용 수상스키 등으로부터 나오는 배출가스를 규제하거나 연근해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배들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유럽집행위원회 추진 사항>

- (8) EU 에코라벨 지표 등을 사용한 에코투어리즘 촉진, 기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장려
- (9) 통합된 연안관리에 관한 바르셀로나협약 및 그에 따른 유럽이사회 권고사항 실천, EU 연안지역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해양공간 계획 및 녹색 인프라구축 장려
- (10) 지속가능한 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폐기물 방지,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장려

<각 회원국, 지방정부, 관련 사업체, 이해관계자 권고사항>

- a. 통합된 연안 관리 제안 및 협정 준수
- b.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보호지역에서의 관광, 레크리에이션 이용을 높일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 c. 연안지역에서 기후변화 적응 개발
- d. 관광지에서 자원 효율성, 폐기물·공해 방지 및 관리 향상
- e. 친환경 관리 및 검사 계획(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촉진 등
- f. 연근해 전기 사용 및 항구 편의시설 규정 촉진
- g. 물 효율성 수단들 촉진

<관련 사업체, 이해관계자 권고사항>

- a 친환경 관광상품 및 지속가능 관광상품 개발 및 촉진
- b 물 효율성 수단들 실행
- c 폐기물, 배출가스, 해양쓰레기 등을 줄이기 프로젝트 적극 참여

나. 혁신적, 지속가능하며 고품질 상품 개발

해양레저·관광 고고학, 해양 자원, 수중관광, 지역음식 체험 등에 매력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새로운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성공적인 사례로 혁신적인 해안 편의시설들 및 고대 해양루트 연결을 통해 요트활동, 해양 문화루트 들을 다양화한 ‘오딧세 프로젝트(Odyssea project)’가 있다. 레크리에이션 낚시, 보트타기, 윈드썰핑, 다이빙 같은 물에 기반한 스포츠가 잠재력이 큰 분야로 이들은 계절성이 크지 않아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레저로서 보트타기도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항상 마리나의 안전성과 접근성이 중요한 부분이며 정박지 부족, 제한된 이동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지속적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제한된 이동성, 정박지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일랜드의 여러 해양국가들을 연결하는 해양 레저센터 같은 항해관광 네트워크를 만든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수준 높은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 원천이며 EU의 관광 품질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다. 도서지역과 격오지 발굴(지리적 제약에 따른 새로운 기회 모색)

섬과 다른 외딴 관광목적지들은 접근성이 취약하고 보트 서비스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며 이는 교통비, 계절성, 육지와 연결성의 문제가 상존한다. 또한 관광 종사자와 방문객들의 매력도와도 관계가 깊다. 하지만 다른 경제활동에서는 찾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서지역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유럽집행위원회 추진 사항>

- (11) 문화적, 종교적, 고대무역길 등 국가간 테마가 있는 관광루트 개발 등 연안관광 매력물의 다양화 촉진
- (12) 외딴섬 혁신 관광 개발 계획 및 섬과 육지의 연결성 향상 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 (13) 마리나 개발을 위한 실행계획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각 회원국, 지방정부, 관련 산업체 역할>

- a. 문화유산에 기반한 관광, 수중 고고학적 공원(유네스코 지정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연안지역에서의 자연 및 의료관광 개발
- b. 관광상품의 일관성, 섬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단위 혹은 지역단위의 전략 사용
- c. 연안 인프라 재활용 혹은 재창출을 위한 혁신 사례 개발

<관련 사업체 역할>

- a. 관광업자 등 연안관광 관련 이해당사자 네트워크 개발

④ EU 재정지원 확대

EU 재정지원 계획(2014~2020)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며 회원국과 지역에도 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세워 개발토록 요구하고 있다.

가. EU 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ESIFs)

「유럽지역 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을 통해 연구혁신 사업, 중소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기후변화 적응, 자연 및 문화유산 개발, 고용창출, 노동 이동성 등과 관련한 사업 형태로 지속가능관광 사업지원이 가능하다.

인프라 개발사업은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제한된다. 다분야 융합 프로젝트 형태로 해양레저관광산업에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바 「해양어업기금」(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EMFF)을 통해 어촌지역 개발에, 「농촌지역 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을 통해 농촌지역 개발에, 「유럽지역 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을 통해 도농 통합도시지역 개발에 지원이 가능하다. 「유럽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직업적응 훈련 지원도 가능하다.

나. 연구, 혁신 및 경쟁력 강화

「Horizon 2020」 계획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해양레저·관광산업에도 연구혁신 개발사업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역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COSME(Programme for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비수기 동안의 수요 창출, 관광상품 다양화 및 수준 제고, 지속가능성, 접근성 개선, 고급인력 확충, 유럽을 세계 최고의 관광목적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을 관광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다. 교육훈련 및 문화

「Creative Europe Programme(2014~2020)」을 통해 자연 및 문화 관광 개발과 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유럽집행위원회 추진 사항>

(14) 해양레저·관광분야 주요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온라인 가이드 개발(중소기업 중심)

<각 회원국, 지방정부 역할>

- a. 각국이 EU 기금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국가차원, 지역차원 전략 개발 및 실행
- b.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국가, 지역 전략들을 국가간에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
- c. 활용 가능한 재정자원의 효율적, 효과적 사용

제4장 헝가리 관광정책

1. 개요

1) 관광정책의 중요성

지금까지 유럽은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사회면에서 흐름과 방향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서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심에 헝가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럽 관광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중심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테러 사건의 잦은 발생 등으로 서유럽의 성장세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중동부유럽 국가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음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다페스트 등 헝가리의 주요 도시들이 유럽에 위치한 다른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물가가 저렴⁵⁰⁾하고 주변국과 연계하여 여행할 수 있는 도로망, 철도망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헝가리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 또한 매년 20%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주변국 특히 크로아티아에 대한 관광수요가 급증하면서 헝가리에 대한 관광수요도 영향을 받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헝가리 관광산업은 헝가리 GDP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가장 크게 일

50) 영국 Telegraph는 부다페스트를 휴가기간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유럽도시중 3위로 선정함(2016, 2박3일-3성급 호텔 기준)

-바르샤바(1위, 144유로), Vilnius(2위, 146유로), 부다페스트(3위, 156유로), 리가(4위, 168유로), 크라쿠프(5위, 170유로), 리스본(6위, 172유로), 두브로브니크(7위, 175유로), 프라하(8위, 180유로), 모스크바(9위, 185유로), 아테네(10위, 190유로)

조하고 있는 산업분야 중 하나이다. 관광산업이 직접적으로는 헝가리 GDP의 5.8%,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헝가리 GDP의 9.4%를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헝가리에서 관광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직접 영향		직간접적 영향
GDP(billion HUF)	1,396	5.8%	9.4%
고용(천명)	338	9.2%	12.1%

출처 : 헝가리중앙통계청(2015)

< 헝가리 여행수지 >

년도	2014	2015	2015/2014
수입(백만 EUR)	4,421	4,814	8.9%
지출(백만 EUR)	1,531	1,650	7.8%
수집(백만 EUR)	2,891	3,164	9.5%

출처 : 헝가리 중앙은행(MNB, 2015)

2013년까지 헝가리에서 관광개발은 국가 관광개발 전략(National Tourism Development Strategy 2005~2013)에 따라 추진되었다. 개발 컨셉은 관광지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상품 공급 확대, 숙박 등 관광서비스 향상, 지역 관광지 관리조직(DMO) 활동을 강화하고 관광업계에 지장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비유럽국가 관광객들의 입국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였다.

계절성을 타파하기 위해 부다페스트의 겨울 방문 캠페인을 전개 11월부터 4월까지 관광객 유치를 모색하기도 하였고 2011년에는 헝가리에 있는 세계유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높은 잠재력을 가진 중국 관광시장에서 중동부유럽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중동부유럽을 독자적인 관광 목적지로 인식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추진⁵¹⁾하기도 하였다.

51) 2014년에 부다페스트에 중국-중동부유럽 관광 협력센터 오픈, 중국과 중동부 유럽 16개국 관광주무부처간 관계 발전(양 당사자간 관광정보 교환, 신규 관광루트, 패키지 상품 등 발굴, 관광비자 정보 제공, 직항로 개설 검토 등)

2) 헝가리 관광정책 추진 체계

헝가리에서는 국가재정부(Ministry for Finance)⁵²⁾가 헝가리 관광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국가재정부에서는 관광정책 뿐만아니라 EU 역내 무역, 국가 예산, 세무, 고용정책을 포함한 국가 경제개발 정책 전체를 진두지휘한다. 국가재정부 안에 있는 관광 및 식음료 부서에서 국가 관광개발 전략 수립·실행, 관광관련 입법, 국제협력, 세체니 레크리에이션 카드(Szechenyi Recreation Card)정책 관리, 국가 상징마크 관리, 식음료 산업에 관한 관리 등을 총괄한다.

또한 국가재정부에서 국내외 관광 프로모션 활동을 하는 헝가리 관광청(Magyar Turisztikai Ugyviseg, MTU)⁵³⁾도 감독한다.

국가재정부(관광 및 식음료지원 부서)에서는 다른 부처와의 관광정책 이슈 주무부처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화 및 의료관광에 있어서는 인적자원부와, 농촌관광·생태관광에 있어서는 농업부와, 해외여행 자제 권고 결정, 비자 문제 등에는 외교부, 통계에 대해서는 중앙통계청과의 관련 협력을 각각 총괄한다. 국가재정부는 주요 관광무역 조직들, 전문 이해관련자 단체들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주관부처이다.

지방 유력관광지에는 지역 관광지 관리 조직(Local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sations, DMOs)⁵⁴⁾이 설립되어 있으며 이들은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관광개발계획, 관광상품 개발, 예약시스템 관리, 연구 및 마케팅,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관광 개발계획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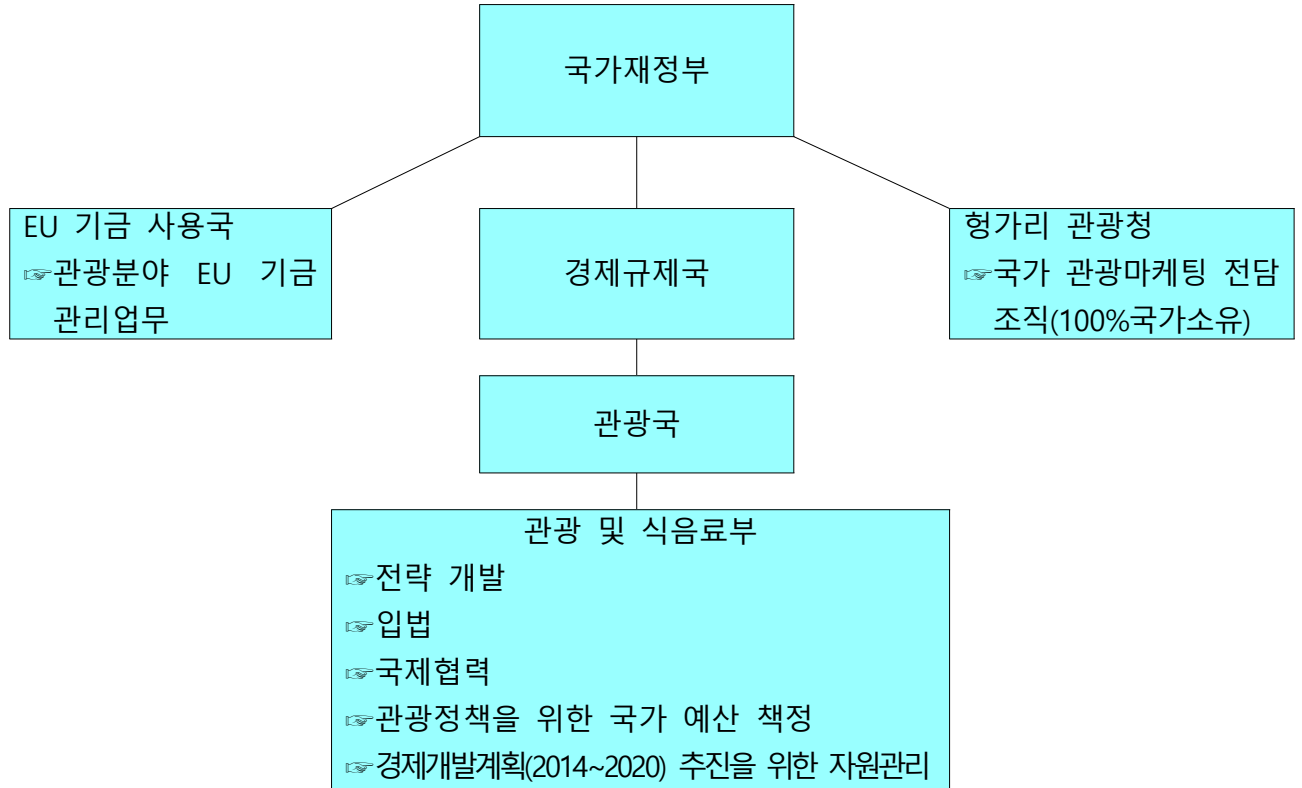
EU 기금이 지원되는 개발 정책들은 EU기금 사용 전담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지만 구체적 사용의 책임은 각 부처에 있다. 관광 관련 기금은 경제규제장관이 관리감독한다.

52) 2018년 4월 총선에서 집권당 승리 이후 조직개편으로 기존 국가경제부에서 국가재정부로 바뀜

53) 헝가리 관광청은 1994년에 설립되었는데 국내외에서 헝가리 이미지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인바운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함

54)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부처 및 민간 기관,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케팅, 관광지 관리 등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도에 사업비 일부(1/2)를 보조하는 한국형 DMO 사업 추진 구상(2018 관광진흥기본계획)

< 헝가리 관광정책 추진체계 >



출처: OECD, 헝가리 국가경제부, 2016 발췌

2. 『국가 관광전략 2030』

관광산업이 GDP, 일자리 창출 측면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속에 2017년 9월 국가경제부에서는 2030년까지 헝가리 관광산업의 목표 및 달성방법을 담은 “국가 관광전략 2030”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1) 관광개발 전략의 개요

헝가리 관광산업 개발전략은 2030년까지 헝가리 관광산업의 목표 및 달성방법을 정의한 중요한 정책계획이다. 이 전략은 헝가리 관광산업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공하고 중요한 관광 트렌드, 관광자원을 개념화하였다.

전통적 관광산업 전략의 새로운 방향,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본 관광인프라 개발, 관광지 개발 뿐만 아니라 지역주도에 기초한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관광개발에 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법률(Act CLVI of 2016)은 개별 관광지 개발에서 지역 개발로의 이동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개별 관광지 개발보다 복합적인 관광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고 마케팅하여야만이 지역 관광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목적지에 기초한 설계를 통해서 비로소 특별한 경험을 줄수 있는 개별 관광지 브랜드, 브랜드 인지도를 관리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관여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관광지 개발과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란 최종목적지에 기반한 접근법을 보충하는 것이고 이는 기 개발된 관광지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방문객들이 높은 수준의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새롭게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고 중요한 콘텐츠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중요한 도전과 세계적 트렌드 분석

① 2030년까지 관광분야의 기대성장 : 가처분 소득의 증가, 새로운 지역 및 활동분야의 관광으로의 융합, 관광의 실질적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소비자 패턴의 이동

② 관광자원 및 최종 목적지 시장의 지역적 이동 : 관광콘텐츠 및 최종 목적지로서 서유럽의 중요성이 향후 10~15년사이에 줄어드는 반면 중국, 동남아시아는 관광시장의 중요자원이 될 것이고, 중동부유럽은 관광콘텐츠 및 최종 관광목적지⁵⁵⁾로서 중요해질 것이다.

③ 여행에 대한 가치의 상승, 신뢰·감성·경험에 대한 욕구 : 상품이나 서비스 대신 여행객들은 점점 더 실제적 경험을 추구한다. 점점 더 많은 여행객들은 단지 관광객으로서만 여행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고 실제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일상에 참여해보고 싶어 한다. 또한 그들과 연결되고 싶어한다. 여행객들은 조립된 패키지 상품을 통해 전달받는 경험을 원하지 않고 관광경험을 직접 생산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더 이상 제공되어 지는 특정관광지가 아닌 경험, 분위기, 감성에 의해 목적지를 선택한다. 감성적 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④ 타켓그룹의 이동 : 선진국의 인구 노령화, 문명화에 따른 병폐, 생활스타일의 변화, 새로운 디지털세대의 등장에 따른 변화하는 욕구 등 인구학적,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타켓그룹이 변하고 있다.

⑤ 공유경제의 확산 : 공유경제의 빠른 확산이 환대시스템, 대중교통, 그리고 규제시스템의 폭발적인 재조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유경제의 확산은 향후 10~15년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새로 등장하는 사용방식 및 비즈니스 모델이 관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⑥ 기술적 도전,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그와 연관된 영향 : 정보혁명의 계속된 성공, 인공지능의 출현, 로봇 및 자율주행차량의 발달은 관

55) 또한 '최종 목적지로서의 관광 전략'이라는 개념은 EU 국가간 지역 경계가 약하고 헝가리에 오는 관광객들의 경우 동유럽 국가 몇 개 나라를 그룹핑하여 여행을 계획함으로써 헝가리가 최종 목적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광산업에 한계 및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기술 발달은 디지털 중압감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강한 욕구 또는 반대로 더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창출하면서 실생활 뿐만아니라 관광객의 생활에 점점 더 영향을 주고 있다.

⑦ 기후변화, 도시화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⁵⁶⁾의 영향 : 기후변화, 도시화 경향이 오늘날 관광지 매력에 영향을 미쳐왔듯이 향후 10~15년은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⑧ 세계 정세, 안전 정책의 변화 : 증가하고 있는 테러 위협 및 EU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 정세(예, 브렉시트)가 국내외 여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3) 전략의 주요 내용

관광 분양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관광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소명이라고 여기고 즉 헝가리가 줄 수 있는 경험을 방문객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전략이며 목표이기도 하다.

① 『2030전략』 비전

- (1)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는 분야
- (2) 수준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
- (3) 접근성이 높아야 하고 고용의 혁신적인 해결방안이다.
- (4) 견고한 국가 관광브랜드를 개발한다.
- (5) 양질의 직업을 제시한다.
- (6) 지역 커뮤니티, 국가 가치를 보호한다.
- (7) 애국심을 고취한다.⁵⁷⁾

56)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관광객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

57) 문화를 사회적 수단 및 목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하여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는 헝가리 문화정책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짐.

② 수직적 전술

- 가. **Kisfaludy 관광 개발 프로그램** :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관광의 기반 향상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일관된 지역 컨셉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 나. **전략적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타겟별 마케팅 활동 및 판매** : 관광 브랜드로서 헝가리를 현대화하고 효율적 마케팅 활동 뿐만 아니라 헝가리를 최종 목적지로서의 브랜드 정립, 국제시장에서의 판매활동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 다. **열성적인 직업정신, 환대서비스** : 관광분야 종사자들의 고양된 직업정신 및 임무 수행 필요
- 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측정가능한 성과** : 관광통계의 개발 및 관광연구·분석·평가의 효율적 실행을 통해 현실적인 관광시장 전망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 마.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 및 동기부여** : 비공식적 경제를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분배시스템 확립을 위한 규제 및 금융환경의 재검토
- 바. **리더쉽 및 협력** : 정부, 지자체, 사경제 주체(영리, 비영리 포함)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감을 통해 다양한 관광시장 주체들의 협력을 활성화시킨다.
- 사. **정체성 및 기타 사항** :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관련 방법들을 활용한다.

③ 수평적 전술

- a. **협력적 관광** : 방문객들이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지역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 확립
- b. **가족 프렌들리 관광** : 다양한 세대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가족에게 친근한 숙박시설, 교통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지 확립
- c. **접근성이 좋은 관광** : 관광지에서의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확립
- d. **정보를 주는 관광** :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e. **디지털 관광**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관광의 모든 면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

4) 전략적 도구 및 재정 재원

- ① 개발 정책, 기획 및 재정 지원, 마케팅, 판매, 훈련, 교육, 연구, 규제
- ② 2030년까지 계획되고 활용될 수 있는 재정재원 : 총 8,367억 포린트(한화 3조 4,391억여원)
 헝가리 국가예산 5,746억 포린트(한화 2조 3,616억여원), EU 개발 기금 2,621.8억 포린트(한화 1조 775억여원)

5) 향후 달성할 목표 및 계획

지표	측정 기준	기준 년도	기준 가치	목표 년도	목표 년도
관광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GDP 대비)	%	2013	9.8	2030	16.0
관광 관련분야등록된 종사자수	종사자수	2013	364,370	2030	450,000
헝가리관광의 글로벌 랭킹(WEF 랭킹)	ranking	2016	49	2030	30
숙박관광객수	night	2016	27,629,453	2030	50,000,000
내국인 숙박관광객수	night	2016	13,827,408	2030	25,000,000
외국인 숙박관광객수	night	2016	13,802,045	2030	25,000,000
리노베이션한 게스트룸 수	room	2016	0	2030	30,000
에이전시 참여한 관광개발프로젝트수	room	2016	0	2030	500
고등교육시스템과 관련된 관광개발 프로그램	package	2016	0	2030	1
관광관련 직업훈련코스 개발 프로그램	package	2016	0	2030	1
최종 관광목적지 차원에서 관광성과 측정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system	2016	0	2020	1

출처 : 헝가리 관광청(MTU)자료 재구성

6) 전략 실행을 위한 시스템

헝가리 관광청이 이러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조직으로서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새로운 국가적 관광브랜드와 그와 연관된 목적지 브랜드 체계를 정립하며 인적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구조를 세워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단계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역 조직을 만들어나가면서 국가, 지방정부, 학교, 이해관계단체, 비영리 단체 간의 폭넓은 협력을 통해 자생적 발전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여 정도를 줄어나갈 계획이다.

7) 헝가리 국가 『관광전략 2030』 시사점

헝가리 국가 「관광전략 2030」에 따르면 이미 유럽에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공유경제의 확산, 여행에 대한 가치의 상승, 신뢰·감성·경험에 대한 욕구로의 변화 등은 최근 관광시장의 세계적 트렌드 변화를 잘 인지하고 있고 이를 정책에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정책 결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가가 관여해 나가기 보다 국가, 지방정부, 학교, 이해관계단체, 비영리 단체 간의 폭넓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세체니 계획」 (Széchenyi Plan)

1) 추진 배경

『세체니 계획』 (Széchenyi Plan⁵⁸)은 1998년에 현재 집권당인 피데스(Fidesz)⁵⁹가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제시한 헝가리 경제부흥계획(1998년~2002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2010년에 피데스가 재집권하면서 『신 세체니 계획』 (2011년~2013년)으로 다시 추진되게 되었다.

- ▲ 피데스(오르반 총리)에서는 지난 사회당 시절 집행된 EU 보조금 사업들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패 구조 속에서 집행된 것으로 폄하하고
 - 「신 세체니 계획」 등을 통하여 새로운 체제와 추진 방식으로 EU 보조금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천명함

즉 『신 세체니 계획』은 1998년부터 추진되다 중단된 『세체니 계획』의 갱신을 의미하며, 2010년까지 기존에 추진되던 『신 헝가리 개발계획(New Hungary Development Plan, NHDP, 2007~2013)』을 대체하는 것이다.

- ▲ 헝가리에서는 EU 기금(2007년~2013년)의 기준에 따라 기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헝가리 내에서 『신 헝가리 개발계획』으로 명명함
 - 교통 부문 25%(62억 유로), 환경 및 에너지 부문 17%(41억 유로), 사회개선 부문 14%(34억 유로) 순으로 배정함

당시 『신 헝가리 개발계획(NHDP)』에 배정되었던 EU 자금(약 250억 유로) 중에서 남은 67억여 유로를 활용하여 헝가리의 중앙은행(Magyar Nemzeti Bank, MND)에서 우대 금리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58) Istvan Szécheny : 19세기 초 헝가리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1820년대 개혁운동을 주도하여 헝가리 발전의 상징적인 정치가(1791-1860)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2의 국가부흥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세체니 계획으로 명명함

59) 피데스(Fidesz, 청년민주동맹)는 1988년 3월 사회주의노동자당(구 공산당)의 청년단체에 대항하기 위해 발족하였으며 1995년 급진 학생운동 노선으로부터 중도 자유주의 노선으로 변경하였고, 중도우파 성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혁을 주장함

또한 위 계획은 기존의 개발 계획(NHDP)과 달리⁶⁰⁾ 예산의 각 50%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그린산업 및 의료 산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시켰으며 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간소화⁶¹⁾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실제 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중소기업은 헝가리 국내 고용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GDP 기여도는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간 연계를 촉진하고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의료분야에서도 일반의료관광과 온천수를 활용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대형 시설이 아닌 중소규모 지역온천과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신 세체니 계획』이 기존의 개발 계획(NHDP)과 다르게 지방정부 사업이 아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하고 헝가리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의료산업을 중점지원 대상으로 추가시켰으며, 보건 산업 및 녹색산업 등 총 7가지로 구분되는 핵심 지원분야(programme)를 설정하는 등 비교적 체계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는 점이다.

▲ 7가지 중점 지원 대상 (「EU기금」 지원) : 보건산업(의료 투자 및 관광 포함), 녹색산업, 주거, 산업환경 개발, 과학-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교통물류

결국 피데스는 위 『신 세체니 계획』⁶²⁾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헝가리의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5%의 GDP 성장률 및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목표를 달성하며, 세수를 확대하여 국가 부채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국가경제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60) NHDP는 예산의 70~80%를 지방정부 사업에 투입하고, 20~30% 만이 제조분야 같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주력 산업 분야에 투입함
 61) NHDP 지원을 받기 위해 적용됐던 24개 규정을 한 개로 통폐합시키고, 필요 서류를 대폭 줄이는 등 간소화하며, 지원 여부 결정과 자금 전도 등도 신속히 결정함
 62) 「신 세체니 계획」은 긴축 재정보다 성장 동력의 회복 등을 위한 경기 진작 및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며, 특히 지역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헝가리 국민경제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세체니 계획(Széchenyi Plan) 2020』 개요

기존의 『신 세체니 계획(2011~2013)』의 각종 정책을 포괄하며 『Euro 2020 전략』⁶³⁾을 달성하고자 2014년부터 2020까지 7년간 총 300억 유로(「EU기금」 254억 유로 + 헝가리 정부 46억 유로)를 투입하는 계획이다.

< Europe 2020 목표 >

(단위: %, 명)

분 류	내 용	2008	2016	2020
고 용	20~64세 인구 중 고용률	70.3	71.1	75
R&D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용	1.84	2.03	3.0
환경 및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1990년 대비)	19.4	22.4	20.0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	11.0	17.0	20.0
	총 에너지 소비량 대비 에너지 효율 (million tonnes of oil)	1,180	1,108	1,086
교 육	18~24세 인구 중 조기퇴교 비율	14.7	10.7	10.0
	30~3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율	31.2	39.1	40.0
사회통합	빈곤 및 사회적 배타 위험인구 감소 (백만명)	116.1	118.0	96.1

출처: Eurostat 자료 재구성

『세체니 계획 2020』에 따른 주요 운영 프로그램(Operative Programme, OP⁶⁴⁾)의 구성 및 예산은 다음과 같다.

63) 2020년까지 고용, R&D, 교육, 사회통합, 환경.에너지 등 5개 분야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EU의 성장 전략으로 유럽집행위에서는 각 회원국에 Top-down 방식으로 목표를 부여함

64) OP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정보 없이 개요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EC는 2018년 12월 현재 7개 OP 승인함

< 운영 프로그램의 구성 및 예산 >

(단위: 백만 유로)

Operative Programme (OP)	EU 기금	헝가리 국고	총 예산
경제개발 및 혁신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7,733	1,080	8,813
지역 및 도시개발 (Territorial and Settlement Development)	3,390	581	3,971
통합 교통 개발 (Integrated Transport Development)	3,332	588	3,920
환경 및 에너지 효율 (Environmental and Energy Efficiency)	3,217	568	3,785
인적자원 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615	455	3,070
공공행정 및 공공서비스 개발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794	141	935
경쟁력 있는 중앙 헝가리 (Competitive Central Hungary)	463	464	927
계	21,541	3,876	25,417

주 : 당초 EU배정계획에 있던 어업개발과 농촌 개발 OP는 「세체니 계획 2020」에서 제외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운영 프로그램(OP)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경제개발 및 혁신 OP는 경제 부흥을 위해 고용 창출, R&D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둘째, 지역 및 도시개발 OP는 지방의 경제 개발과 지역 고용률 향상 등을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지역 천연자원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고 셋째, 통합 교통개발 OP는 범유럽 수송망(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s)과 인근 국가와 철도 및 수로망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환경 및 에너지 효율 OP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강 범람 방지, 수처리 프로젝트 및 에너지 빌딩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체니 계획 2020』은 연구·기술개발·혁신의 강화, 중소기업 등 분야 경쟁력 향상 등 11개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우선 개발 분야로 선정하였다.

3) 「세체니 계획(Széchenyi Plan) 2020」 주요 특징

우선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총 예산의 60%인 4,500bn Forint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는 2007~201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 투자로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 관광지에 연 160만명의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목표 설정 및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며 2020년까지 동유럽의 창업센터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및 혁신은 총 예산의 10%로 2007~2013년에 비해 두 배이며 이 중 혁신에 소요되는 예산 만 680bn Forint에 달하고 있다.

4) 『세체니 계획(Széchenyi Plan) 2020』 시사점

『세체니 계획 2020』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총 예산의 60%를 경제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중소기업 분야에 15%, 연구·개발·이노베이션(R&D&I) 분야에 11%, 고용 창출에 10%, 정보통신기술(IT)에도 4%를 할당함으로써 기존의 생산기지를 넘어서 유럽의 R&D 허브로, 중동유럽의 창업센터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세체니 계획 2020』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 개발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OP) 구분에 따르면 『경제 개발 및 혁신 운영 프로그램(OP)』을 통해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만 『지역 및 도시개발(OP)』에서도 사업지원 목표 및 기대효과로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통합 교통 개발(OP)』에서 목표로 설정한 ‘국가간 철도, 도로 접근성 향상’, ‘도심과 교외지역간 교통여건 향상’ 등을 볼때 관광산업이 중요한 정부정책 방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 개발을 통한 IT 산업 발전 또한 「세체니 계획 2020」에서는 R&D&I사업 투자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도 관광산업 기반구축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4. 「세체니 복지카드」 제도(Szechenyi Kartya)

1) 제도도입 배경 및 개념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헝가리에서는 『세체니 복지카드』를 통한 부가적인 급부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은행 직불카드의 형태로 기업 또는 고용주가 제공한 부가 급부(Fringe Benefit)를 통해 헝가리 내 숙박시설, 레스토랑, 각종 문화시설 등 관광관련 항목에 이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 카드이다.

헝가리의 통합 기업복지 카드인 『세체니 복지카드』는 헝가리의 국내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헝가리에 진출한 외국 기업 체에게도 직원의 복지혜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고용인은 연봉 협상 시 『세체니 복지카드』 등과 같은 부가 급부를 이용하여 수월하게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세제 혜택(법인소득세 면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피고용인은 『세체니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필요한 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⁶⁵⁾”을 세울 수 있으며, 헝가리 내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한편, 기업 또는 고용인은 헝가리의 「개인 소득세법」에 따라 $35.7\% = [(개인소득세(PIT)의 16\% + 건강보험료의 14\%) * 1.19]$ 의 부가급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체니 복지카드」를 통한 기업의 세액공제액 기준금액은 연간 45만 Forint까지 지급할 경우이며, 헝가리 주요 은행(OTP, MKB, K&H)과의 제휴를 통한 부가급부가 개개인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수수료(거래금액의 1.5%)를 부담하는 장점이 있다.

65) 스스로 선호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는 식당의 이름인 카페테리아(Cafeteria)에서 유래되었으며,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 혜택 중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원하는 항목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를 의미함

< 복지카드의 지원 범위 >

(단위: Forint)

혜 택	지원범위
숙박비 지원	연간 최대 22만 5,000
식대 지원	연간 최대 15만
여가 및 문화서비스 지원	연간 최대 7만 5,000
총 액	45만

출처: MKB Bank 자료

2) 복지카드 이용가능 서비스 및 이용현황

『세체니 복지카드』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숙박 서비스(고급 호텔, 일반 호텔, 펜션, 아파트, 민박 등), 레스토랑 및 외식 서비스(레스토랑, 기업 구내식당, 매점 등), 교통 및 온천 이용 서비스(선박, 크루즈, 헝가리 온천 및 사우나), 각종 박물관, 극장, 동물원 등 문화시설 및 국립공원, 테마 파크, 아이스링크 입장료, 건강 및 의료 서비스(헬스, 의료마사지, 미용실, 임신 및 양육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헝가리 통계청(KSH)의 관광산업 통계에 따르면, 헝가리 숙박업소 이용객의 총 숙박일수는 2014년에는 2천 443만 일이었지만, 2015년에는 2천 588만 일로 늘어났으며, 또한 레스토랑이나 구내식당, 레저 활동을 포함한 외식업 판매액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 기준 외식업체 매출액은 830억 Forint(약 3,320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숙박업과 외식업을 비롯한 주요 헝가리 관광산업 매출 및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며, 『세체니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 및 제휴업체(호텔, 레스토랑 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전체 헝가리 호텔 매출액 중 1/4이 『세체니 복지카드』로 결제되었으며 이는 139억 Forint(약 559억 5,319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세체니 복지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149억 Forint(598억 8,688만 원)로 증가하는 등 2014년 대비 7%만큼 증가해 『세체니 복지카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기대수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체니 복지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2만 2,000여 곳이며,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실소유자 수는 125만 명(2015년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은행별 복지카드 종류 >

은 행	OTP Bank	K&H Bank	MKB Bank
서비스 제휴업체	숙박업체: 12,656 외식업체: 17,654 여가 및 레저업체: 15,082	숙박업체: 7,514 외식업체: 13,020 여가 및 레저업체: 10,557	숙박업체: 7,769 외식업체: 13,023 여가 및 레저업체: 10,621
주요 특징	- 다뉴비우스 호텔그룹 (Danubius), 헝가리 관광 카드 등 규모가 큰 업체와 제휴, 사용자 혜택 범위가 넓음.	- 2014년 한 해에만 K&H 세체니 복지카드 가입자 수가 10만 명으로 20% 가량 증가함.	- MKB 세체니 복지카드 프로그램에 가입한 기업은 피고용인에게 혜택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세체니 복지카드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차로 타 은행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	- 특히 헝가리 내의 중소기업들과 탄탄한 관계를 형성, 서비스 런칭 당시(2012년) 3,000개 사가 가입	- 다년간 건강기금(Health Fund)을 운영을 해온 경험으로 피고용인 등의 요구사항에 맞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

출처: OTP, K&H, MKB bank

3) 「세체니 복지카드」 제도의 시사점

① 한국의 일반기업 복지카드와 비교

한국 기업은 대체적으로 기업에서 카드사를 선정해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가맹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되며, 『세체니 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약 1년 5개월인 점에 반해 한국의 일반 복지카드는 포인트를 당해 안으로 소진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다.

또한 『세체니 복지카드』는 부다페스트(Budapest) 뿐만 아니라 헝가리 전역의 숙박시설, 레스토랑,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즐길

수 있어 국내 관광 분야의 매출액이 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한국의 일반 복지카드는 콘도이용권, 자녀학자금, 주택대부, 외식비 등 일부 제한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과 공공기관도 협업해 관광 분야 내수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국내용 기업 복지카드를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②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

중소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에 위와 같은 『세체니 복지카드』를 이용한 효율적인 임금협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대부분의 헝가리 중소기업들은 『세체니 복지카드』, 「엘리자베스 바우처」⁶⁶⁾ 등 부가급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새로운 인력 채용 시 부가급부를 이용해 임금과 세제혜택으로 효율적인 임금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급 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부가급부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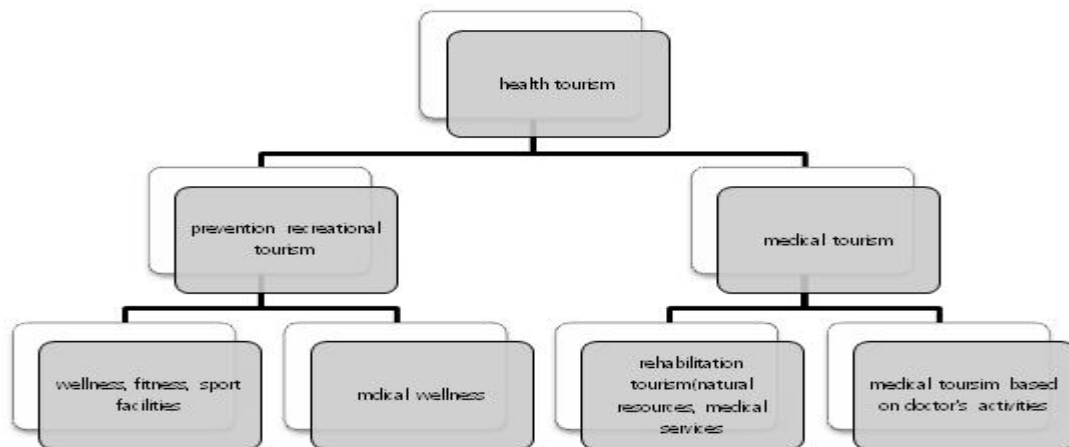
66) 2012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헝가리 국가 휴가 재단(Hungarian National Holiday Foundation, HNHF)에서 대가족, 장애인, 여행을 가기 어려운 연금수급자,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바우처 발행, 바우처 카드 등의 방식으로 운용되며 위 바우처 발행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관광 관련 분야에 전액 사용된다. 1200년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었던 헝가리 왕비 엘리자벳 성녀의 정신을 담기 위해 엘리자벳 프로그램으로 명명(2018년 현재 사용인원이 150만명)

5. 헝가리 의료관광

1) 의료관광 개요

의료관광은 21세기에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관광분야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환자들은 국내에 머무르면서 회복치료를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폭넓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사람들이 치료 목적으로 여행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재할 목적으로 천연 자원들을 기반으로 지어진 시설들에 방문했었다. 반면 요즘에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 자체로 산업이 되고 있다.

< 의료관광 개념 체계도67) >



출처 : health tourism의 개념체계(Kincses, 2009)

67) **Health tourism:** 여행의 목적이 치료, 회복, 건강 증진(wellness, 오락)을 포함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며 관광과 식음료 제공서비스가 포함된다.

Medical tourism: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동 즉 치료를 기반으로 한 건강 회복,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함, 재할 등을 위한 이동

Medical wellness: 건강을 의식한 삶을 위한 동기로서 건강을 강화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료과학을 통한 조치를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동

Recreational tourism: 자연친화적인 삶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말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와 함께 흔히 말하는 치료를 위한 마사지와 같은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개념임

Patient mobility: 환자들이 자신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수 있는 가능성. EU 전문용어에서는 공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함

2) 의료관광 관련 제도 정비

법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뀌어 가고 있다. 유럽 및 국제사회보건법이 개선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시민들이 EU 회원국가 어디에서도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여건이 넓어진 인권 여건, 시설들, 의료기술의 발달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목적의 여행을 촉진시키고 있고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의료관광, 환자의 이동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환자 이동 및 의료관광 규제란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의 규제를 말한다. 이는 사회보장계획에 의해 통제된다.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근거해 유럽집행위원회는 국경초월 의료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2008년 여름에 국경초월 서비스에서의 환자의 권리 지원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지시를 위한 제안서가 발표됐다. 제안서는 2009년 4월 23일에 유럽의회에 의해 확정되었다. 최근에는 모든 EU 회원국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009년 이전과 이후 제도의 차이를 보면

커뮤니티 안에서 이동하는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계획 지원 (2009년 이전)	국경초월서비스에 있어 환자의 권리지원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시를 위한 제안서(2009년 이후)
<p>EU 회원국들은 그들의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위 : 누군가가 임시로 다른 나라에 머무른다면 의료치료를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행와서 치료가 필요해 졌다면 환자는 유럽보험카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혹은 자기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EU 회원국에게 보내졌다면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가능한 치료이지만 환자의 상태,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다른 회원국에서 치료가 가능하다.</p>	<p>EU 시민들은 아플 때 의료서비스 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병원서비스로 정의되지 않는 서비스들은 당국의 허가가 필요없다. * 병원서비스 : 환자가 병원에서 최소 1박을 보내야만 하는 경우, 고비용 의료기구(ex, 양전자 단층촬영)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고위험 질병을 치료하는 서비스(환자 또는 사회의 관점에서, ex) 전염병), 이러한 서비스는 허가를 요함</p>
<p>EU 회원국은 치료를 제공한 국가가 보험으로 치료비를 커버해야 한다.</p>	<p>치료를 제공한 회원국에서 비용이 낮으면 환자는 낮은 금액을 지불하면되고 비용이 높으면 선택의 자유에 대한 비용관점에서 환자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p>

출처 : 영국의 국가 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research) 자료 재구성

3) 헝가리 의료관광

헝가리는 의료관광 분야에서 오랜 전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조건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성과물들을 가지고 있고 건강관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획득했다. 세멜바이즈⁶⁸⁾ 혹은 온천은 헝가리 의료과학의 중요한 특징들로 유명하다. 의료기술 수준 또한 매우 높다. 현재 헝가리는 의료교육 분야에서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온천도 독보적이고 온천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관광도 잘 발달되어 있다. 온천에 포함된 약효성분에 기초한 휴양도 매우 유명하다. 천연자원들 덕분에 어떤 특정질병에는 복합적인 치료도 가능하다. 13곳의 헝가리 건강 리조트(Balf, Bük, Kékestető, Lillafüred, Balatonfüred, Debrecen, Eger, Gyula, Hajdúszoboszló, Harkány, Hévíz, Parád, Zalakaros)도 이러한 치료가 가능하다. 온천 또는 치료적 목욕이 가능한 곳이 385개소에서 발견되었다. 건강 동굴, 약효가 있는 진흙 등 66개의 건강온천이 있고 휴양 관광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분야이며 경제적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다. 온천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의 2008년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한화 1,911억원)로 추정된다.

헝가리는 의약산업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유전학부터 생체정보학까지 좋은 연구 환경을 가지고 있고 재활분야에서 페퇴(peto) 기관 및 peto 방법⁶⁹⁾은 헝가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헝가리는 치과시장, 미용수술, 안과수술 분야는 사적인 공급자에 의해 점령되었다. 재활, 관절수술, 안과수술(크리스탈 렌즈와 안저 수술), 암환자, 자기면역 결핍병 그리고 시험관 아기(in vitro fertilization) 분야에서도 두드러진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헝가리 의료관광의 주력 상품은 치과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헝가리 통계청에 따르면 유럽 전체 치과관광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헝가리를 방문한 치과의료 관광객 수는 약 6만에서 7만 명 수준이고 매출규모도 연간 2억 4천만 유로(한화 3,100억 원)에 이르는 등 치과 분야에 특화된 의료관광 강국이다.⁷⁰⁾

따라서 헝가리의 치과관광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성공 배경, 요인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68) 세멜바이즈는 1860년대 활동했던 헝가리 의사로 산욕열(출산 과정에서 세균감염에 따른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소독법을 의술에 도입한 사람이다.

69) 안드라시 페퇴라는 헝가리 출신 의사가 창안한 것으로 주로 뇌성마비, 뇌손상을 입은 아이들, 파킨슨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방법 중 하나

70) 부다페스트 비즈니스 저널(2012.7.9.)

6. 헝가리 치과관광

1) 치과관광 연혁

① 헝가리 정치혁명 이전

1938년에 2,093명의 치과의사들이 헝가리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치과의사 1명당 4,300명, 그 중 40%(850명)가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 이후에는 치과의사 숫자가 50%까지 줄어들었다.

1950년에 치과직능단체가 무너진 치과진료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전문훈련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1952년에 부다페스트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어 1960년 세계드, 1973년 페치, 1977년 데브레첸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치과전문훈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특히 시골의 경우는 정체상태였다.

정부는 1969년 치과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치과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치과전공훈련시간을 4.5년까지 줄였다. 그래서 1970년에야 비로소 1938년도 수준의 치과의사 숫자를 확보하였다.

인구 대비 치과의사 숫자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은 좀처럼 달성되지 않았고 지리적, 직업적 관점에서 치과의사들은 부다페스트와 헝가리의 서부지역만을 선호하였고 반면에 동부지역의 치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낙후되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치과의사들은 부다페스트에 정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의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 모든 헝가리인들이 치과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규모 공공 보건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사적 의료서비스는 점차 축소되었다.

치과진료서비스 체계는 잘 갖춰졌다. 모든 치료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뤄져 치과진료는 무료였고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도 적절했다. 하지만 무료 진료 등으로 인해 서비스, 장비, 재료의 질은 점점 낮아져 갔다. 더군다나 비공식적인 요금 지불이 이뤄지면서 국민의 구강 건강상태는 점차 악화되었다.

헝가리 서부지역 중심으로 1980년대에 국경초월 치과진료현상이 나타났고 1990년대 초 점차 증가하였다. 외국인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 환자들이 치과진료를 위해 헝가리 서부지역을 찾기 시작하였다. 오스트리아 접경인 헝가리 서부지역은 구소련 붕괴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비즈니스 붐의 영향으로 몇 가지 변화가 생겼고 이탈리아 치과환자들도 1990년대에 치과진료를 위해 헝가리를 왔다.

② 헝가리 정치혁명 이후

치과진료의 자유화가 1995년에 일어났다. 치과보험 및 치과진료 체계가 일명 “복크로스⁷¹⁾ 패키지” 조치를 통해 수정되었다. 첫째, 치과 서비스의 무료진료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 상환과 고용자 부담이 치과진료에 도입되는 것이다. 셋째, 재정지원 방식을 각 의료서비스 별로 지불하는 방식을 종료하고 고정된 비용 보조와 각 의료서비스 별로 지불하는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을 도입 하는 것이다. 각 의료서비스 별로 지불하는 방식의 도입은 선호도가 낮았고 따라서 매출액도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각 의료서비스 별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설 치과진료소 등 사설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 전체 치과진료체계가 붕괴되었다. 불충분한 재정지원이 일상화되었다.

1995년 시작된 정부의 사유화 조치에 따라 치과진료체계에서 사적영역의 성장과 공적 영역이 줄어들게 되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치과기업의 숫자가 0에서 1,371개소로 늘어났고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공적기업이 3,561에서 2,024개소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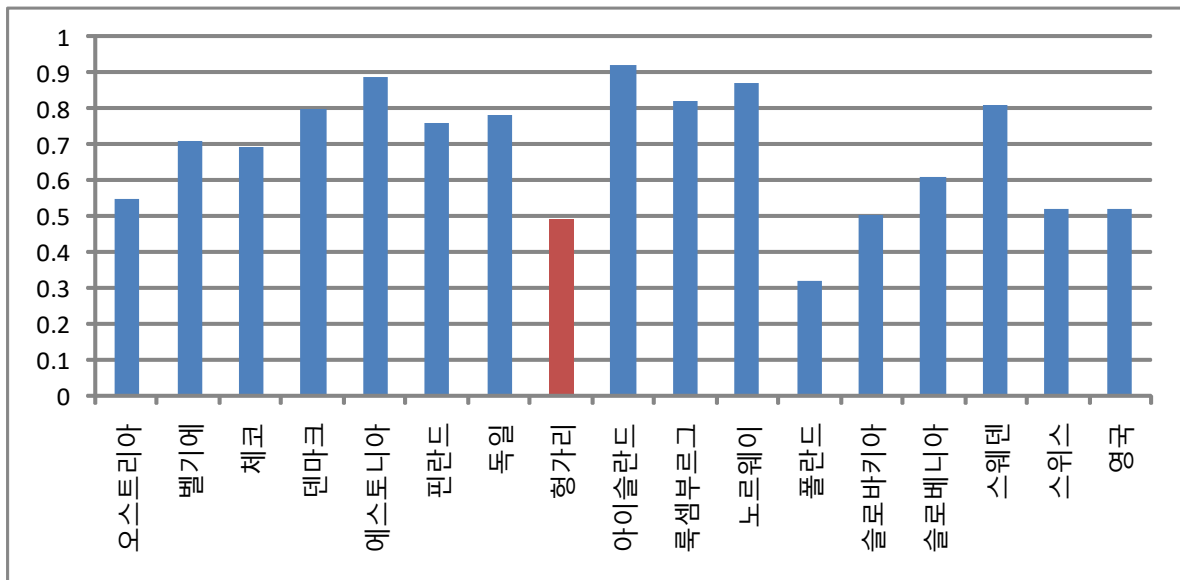
③ 현재의 헝가리 치과진료 체계

치과진료는 3가지 형태로 나뉜다. (1) 1차 치과 진료 (2) 선택적 진료 (3) 시간외 진료. 1차 치과진료는 주치의제도와 비슷하게 지역을 기본으로 조직된다. 하지만 환자는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헝가리에서 치과진료는 단일 건강보험체계하에 무료로 이용한다.

71) 당시 헝가리 재무장관

일반적으로 치과 상담, 검사는 치과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인영업만을 하는 진료소 의사가 검사를 할 권한이 있다. 정기검사를 한다면 진료비의 15%까지 절감된다. 사적 보증을 가진 환자는 단지 응급 진료만을 사회보장보험서비스 체계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 비율은 여전히 EU 평균 수준인 0.6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 EU 국가별 인구 천명당 치과의사 수(2009) >



출처 : WHO

지난 몇 년간 치과진료 재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두드러지게 증가하지도 않았다. 국가 건강보험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2,300포린트(한화 9,200원 정도) 정도 지출된다. 다른 건강보험에 비해 치과진료 서비스의 경우 공적 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었다. 물론 이는 개인 영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치과진료를 포함하지 않은 공적 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치과진료에 대한 통계일 뿐이었다.

2) 헝가리 치의학 교육훈련 실태 및 치과관광 실태

① 인적 자원 규모(치과의사 수)

헝가리에서 내과의사와 비교해서 인구 1명당 치과의사수가 2000년에

서 2008년사이에 56%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사실 치과진료에서 보수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타났다. 즉 2011년에 활동하고 있는 전체 치과 의사 규모가 5,236명이고(2011년 기준) 대략 이들이 2,600여개의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고 이중 500여개 진료소에서는 치과관광을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② 치의학 훈련과정

헝가리에 있는 유명한 의과대학 4군데 모두 치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모두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중 2개교에서는 3개국 언어(헝가리어, 영어, 독일어)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 헝가리어.영어.독일어 프로그램 도입 시기 >

대학교명	헝가리어 훈련프로그램	영어 훈련프로그램	독일어 훈련프로그램
세멜바이즈 대학교	1952	1987	1983
세계드 대학교	1960	2004	-
페치 대학교	1973	2005	2005
데브레첸 대학교	1977	2000	-

출처 : Fejerdy et al. 2004, Balazs 2009

1970년대초부터 1984년까지 치의대생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1990년대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해 150명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 외국 치의대생들의 숫자가 증가하여 1970년대 수준에 이르렀다. 2000년부터 2009년사이 치의대 학위 취득자분포를 보면 총 1441명중 1182명이 헝가리인이며 외국인은 259명으로 전체의 17.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의대 학위 숫자 >

(단위 : 명)

	헝가리인	외국인	합계
2006	117	38	155
2007	137	35	172
2008	120	47	167
2009	123	68	191
2010	142	86	228

출처 : Szel & Girasek 2010

영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이 2006년 대비 2010년에는 120%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듯이 헝가리인 이외에 외국인의 학위 취득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헝가리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치대생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헝가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치대생의 숫자는 최종 학위 취득 숫자를 훨씬 상회하며 실제 전체 정원대비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공부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에 있는 세멜바이즈 치과대학의 경우 2010년 기준 외국인이 316명으로 전체 정원 794명의 40%를 차지⁷²⁾하고 있다.

2012년도에 부다페스트에 있는 의과대학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수학 만족도 조사 결과⁷³⁾를 보면 독일 학생들의 84.1%와 영어 수강 학생 91.8%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경험이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72)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Higher Education Quality Development Portal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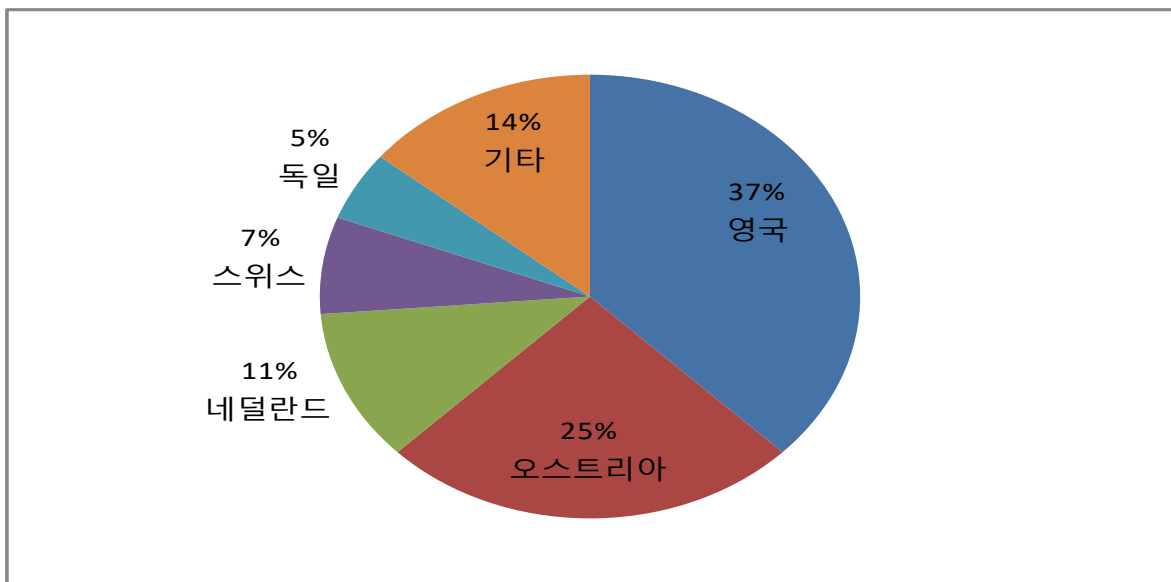
73) 졸업생 커리어 추적 프로그램(Graduate career tracking program)은 대학 혹은 졸업생의 졸업후 직업적 활동, 노동시장에 대한 기회 등 정보를 노동시장과 대학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의 이론과 실습훈련, 교수들의 수준 높은 조력, 교수 대부분이 실제 활동하는 치과의사들이므로 응용력 또한 매우 높으며 지원 기관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 질을 평가하였다. 눈여겨 볼만한 설문 조사를 보면 헝가리에서 공부했던 응답자의 65%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자기자신이 현재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타 동료들보다 실력이 우수하다고 느낀다고 평가하였다.

④ 치과의사들의 이동성

헝가리 치과의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의사분포도는 내과 의사가 4,901명이며 간호사 1,316명, 치과의사는 749명이며 해외근무 의사 숫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헝가리 치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주요 해외진출 국가는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등이다.

< 헝가리 치과학위 소지자 활동국가(2004~2011) >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자료 재구성

⑤ 성공적인 치과관광을 위한 치과진료의 수준 담보 방안

가. 치과협회의 진료 수준 향상을 통한 치과관광 기여

성공적인 치과관광을 위해 대규모 치과진료소 연합회에서는 회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양질의 치과진료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하면서도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는바 ISO(국제 표준화 기구) 시스템 도입이 의무적이어야 하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전문병원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최소 10명의 치과의사 및 구강외과 의사를 고용한다.(치과진료는 다양한 전문의 배치가 필요)
2. 전문병원에서는 현대화된 최소 5개의 수술실과 한해 최소 1,500개의 심미 치아를 준비한다.(현재 준비된 수용능력 중요)
3. 전문병원에서는 지난 2년동안 최소 1,000개의 임플란트를 비치한다.
4. 전문병원에서는 CAD-CAM 기술을 사용하고 사전이식수술 방법을 사용한다. (오늘날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환자 돌봄 필요)
5. 모든 의료재료와 기구들은 수준 높고 평판이 있는 제조업(KaVo, Siemens, Morita, Castellini, ADec, WH, Nouvag, NSK, Trophy, DeTrey, Kerr, Nobel, Zimmer, Friadent, etc) 제품만을 사용한다.
6. 전문병원에서는 모든 치과의사들이 산업에서 인정되는 규약범위안에서 일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치과 및 위생 교육과 전문교육에 참여한다.(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가격을 통한 치료가 가능토록 함)
7. 전문병원에서는 디지털 구강점막 및 파노라마 X-ray 기계를 배치한다.(진단의 정확성 제고 필요)
8. 전문병원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적용가능한 책임보험을 가입한다.(환자의 안전성 확보 수단)
9. 진료 체계가 외부 전문가에 의해 체크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0. 다국어룰 구사하는 스태프를 고용한다.(환자와의 의사소통 필수)
11. 코디네이터와 손님 케어 스태프를 고용한다.(치료 후 고객 관리 중요)
12. 환자 운송 서비스를 운영한다.(외국인 환자 케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출처 : 헝가리 치과클리닉(www.hungariandentalclinics.com) 자료 재구성

헝가리 서부지역에 있는 치과진료소들은 독일표준시스템과 협력하기도 하며 몇 년전부터 소위 “컨센서스 회의” 라는 회의체를 조직해 유럽 전역에서 치과의사들이 전문 협약에 대해 토론을 한다.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팀워크가 강조되기도 하는 바 같은 진료소에 있는 많은 치과의사들과 다른 전문가들이 개별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에 대한 토의를 통해 전문 규약에 대해 내부 통제를 확보하기도 한다.

나. 치과관광 전문회사 설립

2010년도에 관광전문가(라슬로 슈츠), 치과의사(빌라 바토르피), 외과의사(조제프 피프코)의 공동참여로 설립되었다. 이 회사의 목적은 치과관광에 참여할 치과전문가들, 치과진료 사무실, 기타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유명 치과대학 출신 교수 5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헝가리 치과관광 개발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치과관광 분야에서 유럽에서 선두주자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헝가리에는 소규모 치과진료소를 만들고 해외(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의료관광 사무소 설립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차원에서 치과의사가 헝가리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일자리 공급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해외로 인력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소한의 진료수준 담보방안 필요, 직업협약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국가의 컨설팅, 로드쇼, 컨퍼런스를 매개로 치과의사들, 관광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전체 치과시장에 재정지원, 치과 진료 수준 향상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다. 민간 영역의 국제 협력 강화

세멜바이즈 의대, 세계드 의대 등 명문 의대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한 외국기업⁷⁴⁾들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신기술 개발로 의료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치과관광의 본질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74) 한국 중소기업 2개사, 한-유럽 공동연구를 위한 치과 분야 신기술 연구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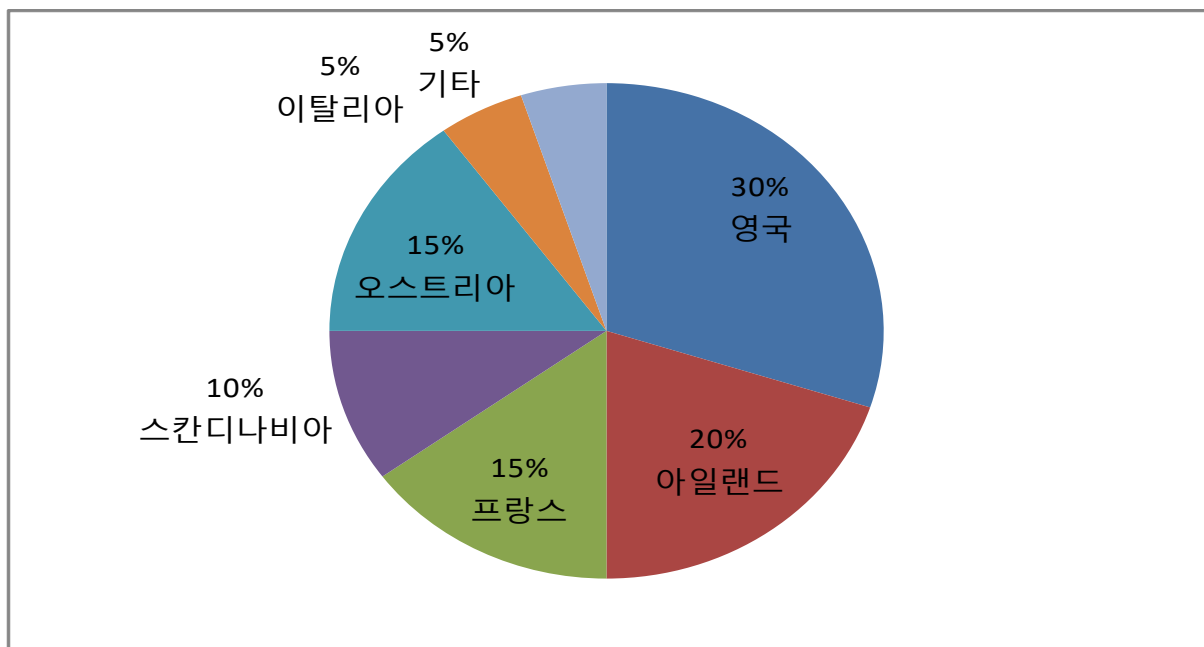
⑥ 헝가리 국경초월(cross border) 치과진료와 치과관광 실태

설문지 및 인터뷰 방식⁷⁵⁾을 통해 조사되었다.

가. 헝가리에 오는 주요 치과관광 방문국가

먼저 오스트리아와 가까운 헝가리 서부지역에서 치과관광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환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치료는 독일어로 진행되었다. 또 다른 치과관광이 두드러지는 지역은 부다페스트로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이다. 부다페스트에는 스칸디나비아,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환자들이 주로 방문한다.

< 치과관광 목적으로 헝가리에 오는 유럽내 방문국가 분포(2010) >



출처 : Kaman 2010

나. 환자의 경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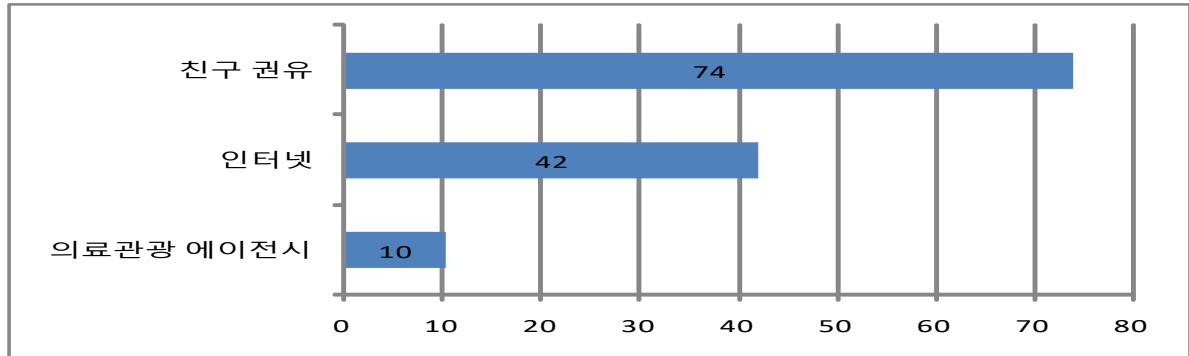
환자 대부분은 개인적 여행의 형태로 치과관광을 오고 의료관광 에이전시 등을 통해 준비하고 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해외 치과진료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으로 친구들의 권유, 인터넷, 의료관광 에이전시 중 친

75) Balazs & osterle(2008), Kaman(2010), Klar(2012), Szucs(2012)

구들의 권유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훌륭한 수술경험이 더욱더 많은 환자들을 재생산해냈다.

< 환자들이 치과관광을 하는 주요 정보 취득원 >

(단위 : %)



치과 진료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해외 치과진료 사무소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치과의사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해외 여행전에 자국에서 진료 계획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치료 후 애프터서비스, 사고발생시 법적책임 한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사전 상담이 신뢰구축에 도움을 주긴하지만 실제 치료계획은 치료받을 나라에 도착하여 실행하는 것이 훨씬 보편적이다. 치료계획을 세울때 쓰는 언어는 영어 혹은 모국어를 이용하지만 환자와 의사간 소통을 하는데에는 영어를 주로 쓴다. 애프터서비스는 주로 헝가리에 와서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재방문을 제고에 기여한다.

다. 해외에서 치과관광을 하는 환자 동기 유형

환자들이 해외에서 치료 받기로 결심하는 주요동기는 다음과 같다. 지불가능한 가격, 높은 의료수준, 능력있는 의료전문가, 첨단 장비기술이 주된 요인이며 문화프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총 치료기간, 전체 치료절차, 총 병원 방문횟수, 애프터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전체 치료계획을 잘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라. 헝가리 치과관광의 장점

환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진료 패키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능력있는 의사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질적 장점, 즉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이유이다. 헝가리는 외국인에게 매우 우수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휴일과 연계한 치과진료가 점점더 매력적이 되고 있다.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로 인한 비용절약, 시간절약, 모든 유럽으로부터 1~2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다수 항공편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주요 장점이다.

헝가리에 치과관광을 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받는 주요 치과진료는 충치치료, 잇몸뼈 충전, 이빨 뽑는 것, 임플란트와 크라운⁷⁶⁾, 위·아래 턱의 틀니 교체 순서이다.

건강관리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늘어나는 환자의 유입과 그에 따른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첨단 기술장비,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담보될 수 있고 치과진료 기술이 향상될 수 있다. 신규 진료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헝가리 치과의사들이 헝가리를 떠나는 것을 막는다. 치과관광을 통해 관광수입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 다른 분야로의 파급효과를 일으킨다.

⑦ 독일 건강보험회사(Techniker Krankenkasse) 자료⁷⁷⁾를 통한 헝가리 치과관광 실태

가. 전체 만족도

2009년 설문에 따르면 헝가리에서 치과진료를 받고자 하는 수요는 전체 회원 중 11%이며 만족감이 80%에 이른다.

2010년 설문에서도 전체의 12% 회원이 헝가리에서 치과진료를 원했다.

2012년 설문(헝가리에서 치과진료를 경험한 130여명)에 따른 헝가리 치과진료 후 만족도 결과를 보면 대기시간, 시설환경, 기술장비 등에 대한 만족도가 96%이상 이었다.

76) 상한 치아를 덮어씌우는 것

77) 8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회사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 보험회사 회원 35,000~50,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나. 비용

응답자 평균 치과진료 가격은 1,800유로(한화 230만원)이며 평균 추가 비용은 376유로(한화 50여만원)이었다.

다. 치료 동기

헝가리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이유는 첫째로 응답자의 67%가 낮은 시술비용이며, 둘째 헝가리에서의 좋은 진료 경험이 30.2%이고 진료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30%였다.

< 각 국별 주요 치과진료 비용 >

(단위 : USD)

치료방법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영국
치아덧씌우기	385	243	250	322	330
치아 미백	289	100	400	350	500
임플란트	1,188	1,429	2,636	650	1,600

출처 : Lunt et al. 2012, P. 12

라. 언어

70%이상의 회원들이 진료소 의사, 직원들과 독일어로 대화를 하였으며 헝가리어를 사용한 회원들도 20%나 되었다. 헝가리어를 비교적 높게 구사한 이유는 헝가리가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술비용에 대한 매력 때문에 또한 동유럽에서 스파 치료에 대한 구 동독시절 밀접한 역사적 연관성 때문에 헝가리어를 배운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⑧ 헝가리 정부의 역할

헝가리 정부는 『세체니 2020』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약 7.5억 유로를 투입(전체 EU 기금의 약 3%), 부다페스트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1.1억 유로)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지방 거점지역에 4개 대형 슈퍼병원을 건립(1.6억 유로)하는 등 국가경제개발계획 차원에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컨설팅, 로드쇼, 컨퍼런스를 매개로 최소한의 진료수준 담보방안 필요, 직업협약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 뿐만아니라 헝가리 치과관광 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국가차원에서 치과의사가 헝가리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일자리 공급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해외로 인력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3) 헝가리 치과관광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헝가리 치과관광 강국이 된 이유는 점점 더 많은 외국 학생들이 치과대학 학위를 따기 위해 모여들고 대학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치과 진료 수준이 높고 합리적 진료비용 또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는 치과진료의 본질적 장점 뿐만아니라 'EU 역내에서는 치료를 제공한 회원국에서 비용이 낮으면 환자는 낮은 금액을 지불하면 되는' 유럽 내 보험 커버리지가 용이하다거나 독일, 북유럽 치과의사 다수가 헝가리 치대 출신으로서 환자의 헝가리 치과진료 접근성의 우수성, 유럽 내 저가항공 등 활성화로 낮은 여행비용,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관광을 즐기기에 유리한 저물가 상황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 초월 치과진료, 치과관광은 환자들 그리고 병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더 이상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만 진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다.

각 회원국과 EU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째,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의사의 면허 및 공인자격증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둘째, 특정 지역사회에서 인재 유출로 인해 전문의사 부족사태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가 정교하게 갖춰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 환자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시장 지향적인 EU 법이 각 회원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각 회원국들의 의료보험체계를 규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제도의 투명성이다. EU 규제는 1998년 이후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했고, 2004년 이후 유럽 건강보험카드 등장, 2005년 이래 의료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이동, 2011년 이후 환자의 권리 향상이 있었다. EU 권고사항에는 의료수준 담보, 고소, 환자에 대한 서류, 전자적 의료기록 등에 대한 국제표준이 포함되어야 하고 모든 EU 회원국들은 모든 유럽 시민들을 위한 수준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투명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관광의 문제, 실태,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국제 수준의 규제, 협약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헝가리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추진사업

1) 개요

유럽은 문화유산에 있어 독보적인 관광지로서 음악, 미식 뿐만 아니라 고성, 박물관, 극장, 역사도시, 산업지역 등 다른 대륙과 비교할 수 없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이다.

헝가리도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부다페스트 왕궁, 마차시 성당, 어부의 요새 등 역사유적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알마씨궁(Almassy Palace), 바르성(Var Castle)과 같이 문화유산을 리노베이션을 통해 부활시켜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성공사례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에스테르하자 성(Esterhaza var) 및 너지젠성(Nagycevk var) 등 오스트리아에 인접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리노베이션해 국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2017년 9월 발표하였다.

성/궁전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알마씨 궁전 (Almassy Pa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2년 건축된 궁전은 20m 높이의 툴립트리로 둘러싸인 멋진 풍경으로 유명하나, 공산화 이후 방치돼 흉물스러운 건물로 취급받음. - 2004년 민간에 팔려 온천리조트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지방정부의 결정으로 역사적장소로 보존 결정 - 헝가리 정부 투자로 2010년 리노베이션 돼 현재 연간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명소가 됨. - 관광객의 1/3 이상이 외국인으로 헝가리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개발에 일조함 	
바르성 (Var Cast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동북부 홀로코(Holloko) 지역에 위치하며 2015년 리노베이션으로 일반 관광객을 받기 시작 - 몽골 침입 이후인 1310년 헝가리 집시들에 의해 건축됐으며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지정됨 	

출처 : 알마씨궁, 바르성 홈페이지 참조

2) 추진실태

헝가리 정부의 『National Castle Program』은 헝가리의 중장기 국가 개발 계획인 『세체니 2020(Szechenyi 2020)』에 따른 헝가리 전역의 중요 성 문화유산 복원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 헝가리 성 복원 계획 >

단계 (복원시작년도)	복원 갯수	성/궁전 이름
1단계(2016)	5	씨게트바르, 디오시죄르, 에게르, 키스바르더, 슈메그
2단계(2017)	13	소프론, 알마씨, 라코치(세렌츠), 초커괴, 오바르, 터터이, 바르게스테시, 비세그라드, 시몬토르너, 체스넵, 솜로, 키니지, 후리
3단계(2017/2018)	14	오노드, 레기, 라코치(사로시페턱), 싸드바르, 시록, 버르, 에스테르곰, 드리게이팔랑크, 노그라드, 화이트 스톤, 나더시디, 쉐르버시괴, 초반쯔, 씨글리게뜨

출처 : 헝가리 국가 성 프로그램(National Castle Program) 자료 재구성

2017년 9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단계 프로젝트에서는 13개 궁전 및 성에 속해있는 39개 건물이 사업대상이며,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리노베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2단계 프로젝트 총예산은 약 1억8000만 유로(한화 2200억 원)규모이며 총예산 중 72.7%에 해당하는 1억3000만 유로(한화 1700억 원)는 EU 기금에서 배정된 예산이고 나머지 28%정도를 헝가리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2단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대상 우선순위 판단기준으로는 첫번째로 ‘리노베이션을 통해 얼마나 헝가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고려되었으며 두 번째는 ‘문화·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이다.

3) 관광자원화 사업 기대효과

① 고용 창출에 기여 : 첫째 이유는 지역에서의 고용 효과이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등에 대한 전문인력에 대한 단기 고용뿐 아니라 향후 관리 인력 및 연계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관광 활성화에 기여 : 둘째로는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꼽을수 있다. 리노베이션 예정인 궁전과 성들이 화려한 경관이나 역사적 상징성을 띠기 때문에 지역 관광산업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업, 요식업 등 지역 서비스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③ 안전성 확보에 기여 : 마지막으로 안전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헝가리 정부 당국에서는 국가 전역에 위치한 35개 궁전, 28개 성, 300개의 역사적 건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UNESCO World Heritage) 지역을 포함한 해당 조사에서 약 26개 건물에서는 심각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관광자원화 사업의 시사점

지방도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연계 서비스업 강화를 위해서 관광자원인 궁전이나 성과 같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사업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단순한 문화재 복원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 뿐만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정방식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관광산업을 특히 지방도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연계 서비스 강화 방식을 통해 경제개발의 하나의 중심 축으로 키워나가하고자 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헝가리의 소규모 성과 같은 관광자원을 기금 및 민간자본을 활용, 숙박시설이나 레스토랑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은 우리 정부가 관광자원화 및 지속가능한 사업방안 중 하나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8. 루인펍(Ruin Pub)

1) 배경

헝가리의 루인펍(Ruin Pub)이란 헝가리에서 시작된 신중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말하는데, 말 그대로 폐허가 된 건물(Ruin)안에 맥주 등 알코올 음료들을 마실 수 있는 이색적이고 독특한 펍(Pub)을 비롯한 클럽, 레스토랑, 호스텔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영국 BBC는 헝가리 루인펍들에 대해서 ‘폐건물들이 힙스러운⁷⁸⁾ 바가 됐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글로벌 여행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리뷰에 따르면, 루인펍은 부다페스트에서 꼭 가봐야할 곳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헝가리 내 대부분의 루인펍이 위치한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헝가리 유대인들이 다수 살았고 1850년대에서부터 1910년대까지 헝가리 중흥기에 지어진 100년 이상된 주택 및 상가 등 클래식한 건물들이 다수 밀집해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다만, 이들 버려진 주택 및 상가들은 과거 공산주의 시절에 관리가 되지 않고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채 내버려져 있었다.

2001년 심플러(szimplier kert)라는 최초의 루인펍이 생긴 이후 젊은이들의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바탕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 주변에 22개의 루인펍들이 연간 수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및 현지인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2) 현황

각 루인펍마다 펍, 클럽, 레스토랑, 호스텔 등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각기 다른 특징과 디자인으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장소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78) 20, 30 대의 독립적인 생각과 반문화성, 진보적인 정치 성향, 자연친화,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과 예술, 지식 그리고 위트를 가치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 루인펍의 주요 특징 >

- ① 버려진 아파트, 상업시설, 주차장 등 폐건물을 개조함
- ② 건물 외관은 오래된 일반 아파트로 보일 정도로 작은 간판만 표시하고 내부로 들어가면서 휘황찬란한 펍을 경험하도록 꾸며놓음
- ③ 인테리어 과정에 디자이너들을 참여토록하여 폐건물이 디자인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함
- ④ 짝이 맞지 않는 의자, 테이블 등을 비치, 자유스러운 분위기 연출

< 주요 루인펍 소개 >

펍 이름	특징	비고
Szimpla Kert	2001년에 문을 연 최초의 루인펍이자 가장 크고 대표적임. 아파트 하나의 공간 곳곳에 서로 다른 형태의 조그만 펍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맥주, 팔링커(헝가리 전통주), 물담배 등을 판매. 곳곳에서 디제잉과 댄스를 즐길수 있음	
Instant	아파트 건물 전체를 개조해 만든 클럽 스타일의 루인펍으로 좁은 복도를 따라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다른 분위기의 아파트 각 방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루인펍	
fogas Haz	천장에 자전거들이 매달려있는 작은 루인펍으로 대부분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는 다른 루인펍과 달리 조용한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루인펍. 종종 현대미술과 같은 전시회가 열리기도함	
Mazel Tov	헝가리로 들어오는 항공사 잡지들에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매력적인 레스토랑으로 소개되기도 하는 레스토랑 스타일의 루인펍. 중동 및 이스라엘 식사류가 판매됨	
Corvin Teto	중심지 슈퍼마켓 옥상에 위치한 루인펍으로 탁트인 정경이 장점으로 낮에는 차, 커피를, 밤에는 알코올과 댄스음악을 즐길 수 있음	
Grandio	호텔과 바가 함께 위치한 루인펍임. 기본적으로 호텔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행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임.	

출처 : ruinpubs 홈페이지 참조(ruinpubs.com)

3) 시사점

아름다운 부다페스트 도심 속 흉물인 폐건물들을 독특한 펍의 공간으로 만들어 폐건물 재생을 통해 오히려 관광객들이 부다페스트를 찾게 만드는 매력 중 하나로 자리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였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업사이클링적 요소가 민간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에 적용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루인펍 성공사례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폐건물 등을 활용해 독특한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충분한 활용 자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폐건물 주변에 저녁시간대에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어 지역 개발 및 지역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특한 콘텐츠 요소와 결합한다면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개발사업은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로 낙후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저렴한 임차료 등 사업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여건도 큰 장점이다.

최근 국내 지방도시들의 경우 신시가지 중심의 개발로 구시가지는 도시 공동화 현상 및 그에 따른 구도심 슬럼화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지방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상호 협업⁷⁹⁾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루인펍 사례는 많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9) 2018.8.13.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구조조정 등으로 폐쇄된 후 방치되어 오던 옛 청주연초제조창을 국토부와 문체부 간 협력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을 갖춘 청주지역 거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9. 스마트 호텔 도입

1) 개요 및 현황

IT 기술의 발달과 무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식당, 편의점 뿐만 아니라 인력 투입 없이 운영되는 서비스가 호텔산업까지 확장되었다. 객실예약, 체크인 및 체크아웃 등 모든 호텔운영이 100% 스마트폰 어플로 이루어지는 스마트폰에 의해 운영통제되는 호텔(호텔명 : KViHotel Budapest)이 2018년 유럽 최초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등장하였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탑재한 형태의 스마트호텔은 각국에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호텔로는 KViHotel Budapest이 최초이다.

☞ 일본의 경우 '헨 나 호텔 도쿄 긴자(Henn na Hotel Tokyo Ginza)는 리셉션 데스크에 안드로이드 로봇이 배치돼 있고 체크인아웃은 리셉션 데스크에서 안면인식기능이 탑재된 태블릿 PC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객실 냉난방온도 조절 등은 객실 내 태블릿 PC를 통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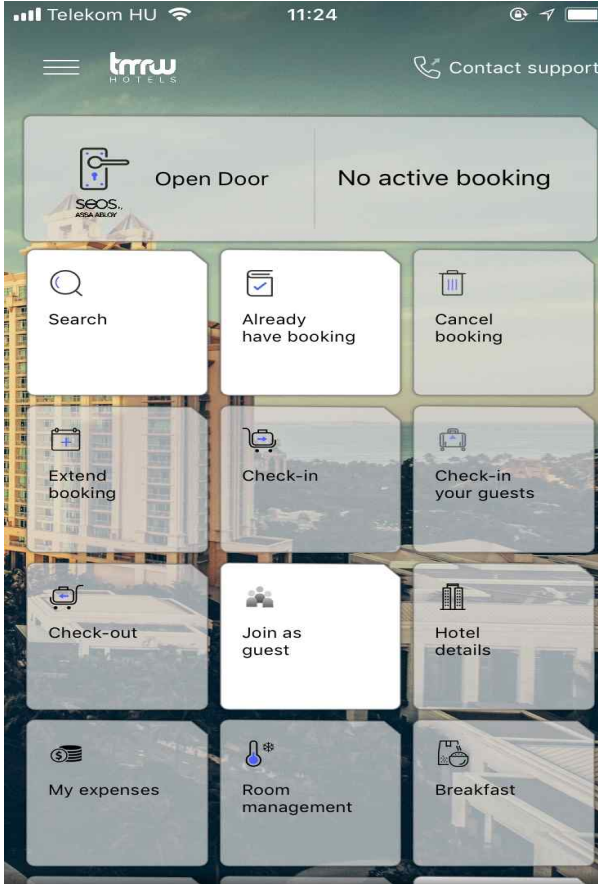

2) 이용절차

이 호텔은 『TMRW(tomorrow) Hotels』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객실 관리, 호텔 서비스, 체크인아웃 등 모든 숙박 서비스가 진행된다.

이메일 주소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할 수 있고 체크인 시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신분증스캔본' 파일 전송을 통해 진행된다. 객실출입은 열쇠나 카드 없이 블루투스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잠금장치를 연결해 작동되며 호텔 로비에 별도의 안내데스크가 없으므로 투숙 중 모든 서비스 요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체크아웃 시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체크아웃 버튼만으로 완료된다.

청소직원들은 『TMRW Hotels』 어플리케이션이외에 별도의 『TMRW HK(house keepin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진행현황을 파악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 호텔관련 주요 정보 >

	
<p>TMRW Hotel 로고</p>	<p>TMRW Hotel 애플리케이션 로고</p>
	
<p>TMRW Hotel 어플 메뉴화면</p>	<p>TMRW Hotel 어플 체크인 화면</p>

출처 : 스마트 호텔 홈페이지 참조(<https://www.kvihotelbudapest.com>)

3) 스마트호텔의 장단점 및 시사점

스마트호텔의 큰 장점으로서는 첫째, 모든 호텔 운영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절감 면에서 탁월하며 둘째, 최근 헝가리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력부족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셋째, 호텔 이용절차가 매우 간소하므로 운영면에서 큰 효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종이 사용량은 제로에 가까우므로 환경친화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모든 과정이 전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산상 시스템 오류는 불가피하며 이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자칫 오류의 빈도가 잦으면 자동화, 혁신성 등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호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언어가 취약한 사람에게는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는 점 등이다.

이 『TMRW Hotels』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한 자사 KViHotel 만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향후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과 같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등 사업효과에 따라서는 폭발적인 확장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서두에 말했듯이 관광은 국민이 여가 활동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아 국민 개인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용창출효과가 타 산업보다 높아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라는 국민 개인의 실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또한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 국정원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세계가 이러한 관광산업의 중요성, 발전가능성을 공감·인식하여 모든 국가가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오랜 역사를 토대로 한 수많은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1등 관광지이다.

유럽 관광산업도 유럽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써 다른 산업에 대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유럽공동체 GDP의 11%이상을 차지하고 12%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여주는 사회발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회경제 활동인 것이다.

하지만 유럽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다른 여건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다. 유럽연합(EU) 공동체, 각 개별 회원국가, 지역이라는 3곳의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와 그 속에서의 관광사업체, 공공 이해관계자 등 더욱 복잡한 구조속에 놓여 있다. 관광산업에 치명적일 수 있는 국제적 테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큰 위협이다. 많은 유럽 유명관광지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각종 편의시설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관광지 소음과 쓰레기, 관광지 인근 지대 상승으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관광의 계절성, 행정 규제, 관광관련 세금정책, 전문인력에 대한 구인난, 정보의 글로벌화, 빠르게 변하고 있는 IT기술환경(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관광서비스에 관한 정보, 숙박예약 시스템 등) 변화에 따라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고객맞춤형 요구사항 증가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65세이상 유럽인구가 202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⁸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은퇴후 더 많은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대보다 부유하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인구학적 변화요인에 대한 대응방안도 절실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한 공유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효과를 확대하고자 2016. 6월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유럽 내 협력 어젠다를 채택하여 공유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고 업무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공유경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운영체계를 마련·추진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미 모바일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공유숙박 활성화에 대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단기숙박 대여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등 인프라 뿐만아니라 여행 및 식사 경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유럽 각 국에서도 실정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헝가리 정부에서도 『관광전략 2030』 전략 계획을 통해 총 8,367억 포린트(한화 3조 4,391억여원)을 2030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재정계획인 세체니 계획으로 관광 인프라 조성에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뒷받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다양한 성, 궁전 등 문화유산 정비를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시켜 나가는 정책 등을 통해 여러 분야에 흠어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융복합시켜 관광산업의 외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관광분야 정책 입안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식 확산으로 관광에 대한 요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모바일·온라인을 기반한 개별관광 형태로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따라 융·복합적 신규업종 출현 등 관련한 핵심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및 헝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광산업이 고용의 창출이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인식 하에 「EU 기

80) EU에는 55세에서 80세 사이 연령층이 1억2천8백만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한다.

금」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등의 피드백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관광사업체가 중소기업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금융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도덕적인 해이와 역선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가급적 회피하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등 위험을 최대한 분산하고 있으며 시장의 왜곡현상도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 속에서 EU 역내의 경쟁력 제고 뿐만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의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예측을 통해 알 수 있는 BRICs로 대표되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시장으로의 확장 및 사업 기회의 제고, 국제적 분업의 촉진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신규 업종 출현, 관광여건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럽, 헝가리의 주요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관광개발을 위한 좀 더 새로운 전략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1. 국내 문헌

- 관계부처 합동,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2018
- 국회입법조사처(김민창),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201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U기금을 활용한 유럽시장 진출 확대전략, 201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부다페스트 무역관), 2017 헝가리 진출전략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부다페스트 무역관), 2019 헝가리 진출전략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U기금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 수주방안, 201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나승권 외 2),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201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김면희 외 4),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 분석, 201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헝가리와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01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헝가리의 주요 산업, 2008
- 부동산 포커스(안희자), 주요국의 숙박공유 정책 동향과 시사점
- KDI(김민정),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2017
- OECD, 2016 OECD 관광 동향 및 정책(관광 공유경제 정책)
- 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 신경제정책 추진개요 발표, 2011
- 주헝가리 한국대사관(헝가리 한국문화원), 헝가리 정부 문화정책, 2014
- 주헝가리 한국대사관(헝가리 한국문화원), 헝가리 콘텐츠 산업 현황, 201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홍장원 외 3), 해양레저·관광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김윤영), 지역관광발전지수 도입 기초 연구, 2014

한국개발연구원(KDI), 중부유럽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헝가리 경제발전 계획 수립, 2014

2. 국외 문헌

Balazs P, Cross-border patient migration in the Hungarian dentistry, 2008

Balazs P. International migration effects and internal factors in Hungarian health workforce, 2009

Budapest Business journal (2012)

https://bbj.hu/business/hungary-aims-at-bigger-bite-of-dental-tourism_63662

C Anastasiadou(2008), stakeholder perspectives on the European Union tourism policy framework and their preferences on the type of involvement.

City of Amsterdam(2014), “Amsterdam and Airbnb sign agreement on home sharing and tourist tax” , City Hall Press Releases, www.iamsterdam.com/en/media-centre/cityhall/press-releases/2014-press-room/amsterdam-airbnb-agreement.

City of Amsterdam(2015), “Amsterdam short stay policy” , www.iamsterdam.com/en/local/live/housing/rental-property/shortstay.

CLIA Cruise lines(2018), Contribution of cruise Tourism to the economies of Europe 2017(3.p)

EC, A European strategy for more growth and jobs in coastal and maritime tourism, 2014

EC, Europe, the best destination for seniors(Facilitating cooperation mechanisms to increase senior tourist travels, within Europe and from third countries, in the low and medium seasons), 2014

EC, The European Tourism indicator system, 2016

EU, The European Tourism Indicator System: Toolkit for Sustainable Destinations, February 2013

ECORYS, Study in support of policy measures for maritime and coastal tourism at EU level , 2013

EC, Europe 2020 strategy: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2010

Fejerdy, P, Gerle,J, Kobor, A. Dentists' migration and decentralized dentistry training., 2004

Forbes(2015), “The future of the sharing economy depends on trust” , Forbes, www.forbes.com/sites/theyec/2015/02/10/the-future-of-the-sharing-economy-depends-on-trust

HUFS(sora Ji), The European Union Tourism Policy and sustainability, 2015

Hungarian tourism agency, tourism in Hungary 2015 with final data, 2015

Hungarian tourism agency, National tourism development strategy 2030, 2017

Kaman A, Dental tourism as the key sector in health tourism, 2010

Kincses, The conceptual system of health tourism, 2009

Klar A, Gesundheitstourismus in Europa, 2012

Lunt N, Treatments, markets and health system implications, 2012

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Health research, The medical tourism in Hungary

OECD, Hungary in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6

OECD, OECD Economic Surveys: Hungary 2016, 2016

Pwc(2014), The sharing economy –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PwC (2015), “The Sharing Economy: Consumer Intelligence Series”

Rating Legis. 2016. “Analytical paper on market access

requirements in the short-term accommodation rental sector in Barcelona, Berlin and Amsterdam.”

Semmelweis University, Why is Hungary the main destination country in dental tourism, 2013

Szel A, Girasek E. Workforce and medical training, 2010

Szucs L. Application for development of dental practices and dental tourism, 2012

3. 관련 인터넷 사이트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헝가리 무역관, www.kotra.or.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세계보건기구(WHO), <http://apps.who.int/gho/data>

세체니 2020, palyazat.gov.hu/szechenyi_2020

OECD, www.oecd.org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관광), ec.europa.eu/growth/sectors/tourism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www.bel.mofa.go.kr

엘리자베트 프로그램, <http://www.erzsebetprogram.hu/>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 www.ief.org

유럽 2020, ec.europa.eu/europe2020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TMRW 호텔, tmrwhotels.lif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헝가리 관광청, mtu.gov.hu

헝가리 경제연구소(GKI), www.gki.hu

헝가리 국립문화기금, www.nka.hu

헝가리 정부포탈, www.kormany.hu

헝가리 중앙은행, www.mnb.hu

헝가리 통계청, www.ksh.hu

헝가리 치과협회, www.hungariandentalclinics.com

요 약 서

산업자원의 관광자원화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

관광은 국민 여가 활동 중 가장 선호가 높아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 국정원리를 실현해 나갈수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특히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1등 관광지 중 하나이며 관광을 통해 지역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 유럽정체성 형성 등을 통해 공동체에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

유럽은 정치적, 환경적, 사회적 안전성 문제, 음식·숙박 안전성 및 사회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 관광의 계절성, 행정 규제, 관광관련 세금 정책, 전문인력에 대한 구인난, 정보의 글로벌화, 빠르게 변하고 있는 IT기술환경(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관광서비스에 관한 정보, 숙박예약 시스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어려움 등 수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고객맞춤형 요구사항, EU 내 새로운 관광지로 부터의 치열한 경쟁도 또한 중요한 도전이다.

더욱이 유럽은 유럽연합(EU) 공동체, 각 개별 회원국가, 지역이라는 3 곳의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와 그 속에서의 관광사업체, 공공 이해관계자 등 복잡한 구조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 기기 등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공동체, 많은 개별회원국가와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면서 조율해 나가고 있는 유럽의 공유경제 대응 방식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충분하다.

2016년 6월 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EU법 내에서 공유경제의 5가지 핵심 쟁점(시장진입 요건, 책임규정, 소비자 보호, 고용, 과세)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여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한 공유경제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유경제 효과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공유경제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관광분야만을 위해 특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광 분야를 넘어선 폭넓은 정책 체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핵심적인 고려 요소와 우선순위 정책 목표에 대한 원활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운영 체계 강화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는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성장총국에서 2015년 초에 협력적 경제, 신사업 방식,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립하여 성장총국 내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전반에 걸쳐 관심 있는 총국과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전통적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중심이었던 유럽 관광의 추세가 테러 사건의 잦은 발생 등 정치적 이유로 중동부유럽 국가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헝가리 관광정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헝가리 국가 『관광전략 2030』을 통해 신뢰·감성·경험에 대한 욕구로의 변화 등은 최근 관광시장의 세계적 트렌드 변화를 잘 인지하고 있고 이를 정책에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점,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정부, 학교, 이해관계단체, 비영리 단체 간의 폭넓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관광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헝가리는 오랜 전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조건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성과물들을 가지고 있고 건강관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획득했다. 세멜바이즈 혹은 온천은 헝가리 의료과학의 중요한 특징들, 수준높은

의료교육 분야, 온천에 포함된 약효성분에 기초한 휴양 등 독보적이고 온천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관광도 잘 발달되어 있다.

헝가리는 치과관광으로 유명하다. 이는 EU 역내에서는 치료를 제공한 회원국에서 비용이 낮으면 환자는 낮은 금액을 지불하면 되는' 유럽 내 보험 커버리지가 용이하다거나 독일, 북유럽 치과의사 다수가 헝가리 치대 출신으로서 환자의 헝가리 치과진료 접근성의 우수성, 유럽 내 저가항공 등 활성화로 낮은 여행비용,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관광을 즐기기에 유리한 저물가 상황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또한 이런 성공적인 치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치과관광의 최소한의 진료수준 담보방안 필요, 직업협약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국가의 컨설팅, 로드쇼, 컨퍼런스를 매개로 치과의사들, 관광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전체 치과시장에 재정지원, 치과 진료 수준 향상 등을 달성하고자 한 노력들도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야 하는 융복합 관광시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사업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단순한 문화재 복원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 뿐만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정방식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관광산업을 특히 지방도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연계 서비스 강화 방식을 통해 경제개발의 하나의 중심 축으로 키워나가고자 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루인뵘 성공사례를 통해 도심 내 유희자원이 독특한 콘텐츠 요소와 결합한다면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호텔 사업 진입은 다양한 장단점이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